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調查經緯/139

社會背景/141

家族構造/150

方 言/155

說 話/168

民 謠/173

信 仰/190

觀 光/199

民 具/208

海 女/213

調查經緯

本 大學 民俗博物館의 부설기구로 學生들의 研究團體인 文化財研究會가 출범한 것은 1973년 6월의 일이다.

이 문화재연구회에서는 수집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학술 발표회, 공연회 및 슬라이드 상영회등을 개최하여 왔다. 그 활동 가운데 특히 역점을 두었던 것은 龍水里 調查와 吾照里 調查였다.

本 龍水里를 調查 對象地로 선정한 것은 위에 調查한 吾照里와 比較함으로써 東西 兩海村의 民間傳承과 海村生活의 基層文化를 立體的으로 파악하고자 한 의도에서 이다.

龍水里 調查는 1974年 2月 17日부터 5日間 金榮敦(社會背景, 民謠), 玄容駿(家族構造, 信仰), 沈汝澤(說話), 徐庚林(觀光), 姜根保(方言), 文基善(民具) 教授들의 지도 아래 9개 學科 19名の 참여로 이루어졌다. 調查에 參與한 學生은 다음과 같다. (())안은 학과 및 학년)

社會背景 : 박성철(法 3), 백정현(國藝 1), 고석희(國敎 3), 김인택(美敎 1)

家族構造 : 이태리(英文 3), 강영중(國文 2)

方 言 : 전영철(國文 3), 이수남(國文 3), 최은자(美敎 1), 서창남(農化學 1), 김
홍석(國敎 3)

說 話 : 장원택(國敎 4), 신경수(美敎 3)

民 謠 : 오익삼(國敎 3), 김윤건(國敎 2)

信 仰 : 좌동열(國文 4), 안상근(國敎 3)

觀 光 : 이종석(國藝 1), 김영진(觀光 1), 허향진(觀光 1), 강영범(觀光 1), 함경
태(觀光 1), 김봉(觀光 2)

民 具 : 이영진(美敎 1), 조인득(美敎 1), 한영자(美敎 1), 이기정(美敎 1), 최은
자(美敎 4), 한영자(美敎 4)

濟州島部落誌 (Ⅲ)

海 女 : 양순열(國文 2), 고권일(國文 1), 양혜순(家敎 1), 임상빈(食工 2), 김영
준(食工 2)

指導敎授나 學生들 모두 誠心을 다해 調査에 임했으나, 未洽한 점이 많아 2
次 調査를 벌인 후에야 이와같은 報告書를 낼 수 있었다.

이 報告書가 햇벌을 보게 된 데는 金成煥씨, 康日好씨의 勞苦가 컸으며, 協
助를 아끼지 않으신 現地住民과, 특히 宿食을 마련해 주신 金公만씨, 金태봉
씨의 恩德이 컸으니, 이에 格別한 謝意를 표한다.

社 會 背 景

目 次

- I. 自 然 環 境
- II. 史 的 背 景
- III. 人 文 概 況
- IV. 產 業 構 造

I. 自 然 環 境

龍水里는 濟州市에서 一周道路를 따라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濟州島 聚落形成의 一般的 傾向에 따라 해안에 형성된 部落으로 行政上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로 되어 있다.

一周道路를 따라 달리다가 보면 車는 龍水里的 名物인 龍水貯水池 入口에 이른다. 一周道路 남쪽에는 韓國民俗音樂博物館 入口 標識板이 보이는데, 여기서 下車하여 북쪽으로 0.8km쯤 걸어 내려가면 龍水里라는 마을에 다다르게 된다.

龍水里라는 里名은 龍塘里 한복판 一周道路邊에 약 200 m가 되는 ‘용못’(龍池)에서 緣由한다고 傳해진다. 이 못에는 예전에 龍이 살고 있었는데 그 龍이 昇天하였다 하여 ‘용못’이라고 한다.

濟州島部落誌(Ⅲ)

東經 126° 11', 北緯 33° 24'에 위치한 龍水里는 近接마을로 동쪽에 龍塘里가 있고, 북쪽으로 약 1.8km쯤에 新昌里가 있으며, 남쪽으로 약 2km쯤에 高山里가 위치한다.

龍水里는 海拔高度가 最高 5m에서 最低 1.5m로 平均 3m의 平地를 이루고 있다. 土質은 褐色 酸性 土壤으로 고구마 대량 생산에 알맞은 粘土이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면 農土에 물이 많이 고여 農作物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한다. 또한 '작은 육지'라 불리울 정도로 논이 많은 것도 이 마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耕作面積은 약 148ha인데, 그 가운데 논이 58ha에 이른다. 이것은 濟州道 전체의 논밭 비율이 1:50임에 비하면, 他里에서 별로 볼 수 없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런데 논 가운데 31ha는 外地人의 所有라는 사실은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年平均 氣溫은 14.7℃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濟州市와 비슷한 傾向이다.

<表 1>

月別氣溫分布

翰京面 龍水里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年平均
平均氣溫(℃)	4.9	5.2	8.1	12.4	16.2	20.5	25.2	29.8	21.8	16.8	12.1	2.7	14.7

資料: 翰京面 事務所 提供

1976年度

年降雨量은 945.8mm이고 최고 강우량 112mm, 최저 강우량 0.3mm를 나타낸다. 8月末에 秒速 30m의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이 4년에 한번 정도 불어 닥치며, 秒速 15m의 태풍은 일년에 한두번 來襲한다.

龍水里의 自然部落은 '앞동네' · '뒷카름' · '장안' · '뱀기동' 등으로 나누어진다.

Ⅱ. 史 的 背 景

龍水里의 歷史的 背景이나 設村由來에 대하여서는 參考할 만한 資料나

文獻을 찾아 볼 수 없고, 이곳 老人들의 口述에 의해 設村背景과 年代 등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예로부터 이곳은 風水地理적으로나 政治·經濟적으로 重要視되거나 特記할 만한 事件도 없어서 歷史文獻에 記錄되지 않은 것 같다.

龍水里는 原來 頭毛里에 귀속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곳은 모두 農土였다고 한다. 그런데 頭毛里에서 往來하며 농사를 짓는 데는 많은 불편이 따랐고, 時間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움막을 짓고 農耕生活를 하면서 자연히 하나의 聚落이 形成되어 지금의 龍水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龍水里의 浦口 ‘개창밧’에는 그 당시 지었던 움막이 現存하는데 이 움막이 지어진 年代를 약 200年前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事實을 확인할 記錄도 역시 없다.

한편 一說에는 龍水里 南方 약 500m 가량 떨어진, 俗稱 ‘삼밭숙물’이라는 곳에 자그마한 부락을 형성해 살다가 지금의 龍水里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도 한다.

龍水里는 점차 聚落이 擴大되어 龍水里一區(지금의 龍水里)와 龍水里二區(지금의 龍塘里)로 分割되었다. 그러다가 一區와 二區와의 거리가 약 1km나 떨어져 있어서 里行政을 統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龍水里와 龍塘里로 分里되었다. 龍水里나 龍塘里가 分里된 것은 1952년의 일인데, 兩里 사이에서는 第一種共同漁場을 둘러싼 紛糾가 쉬임없이 이어져 오더니 1968年을 前後해서는 最惡의 狀態에 이르기도 하였다.

龍水里는 원래 翰林面(現 翰林邑)이었으나 1952年 7月, 分面됨에 따라 翰京面에 소속되었으며, 지금은 翰京面 高山出張所 官轄이다.

龍水浦口에 位置한 節婦岩에 얽힌 傳說은 特記할 만하다. 浦口 入口의 큰 岩石에 ‘節婦岩’이라고 뚜렷이 새겨져 있는데, 지금도 5月 13日이면 機關長과 住民들이 모여 祭祀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敎化的 影響도 적지 않은 이 ‘節婦岩’을 遮歸島와 연결시키면서 개발한다면 觀光地로서의 가치가 클 것이다.

Ⅲ. 人 文 概 況

龍水里의 現在 人口는 972名으로 男女性比는 女 100對 男 93.6이다. 總

濟州島部落誌(Ⅲ)

面積 8,252ha 中 耕地面積은 3,786.7ha이다.

이 部落은 自然的 增加 이외에 社會的 增加로 他道에서 事業에 失敗한 사람들이 轉入해 오는 경향이 있는데, 두드러진 곳은 釜山과 全羅道地方이다.

<表 2>

男 女 別 人 口

翰京面 龍水里

年度 \ 區分	男	女	總 人 口
1976年	470	502	972

資料: 龍水里事務所 提供

1976年 12月 現在

새마을 事業과 관련해서 道路鋪裝도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다. 1972년에 마을 進入路 700m가 폭 8m로 포장되었으며, 또한 마을 안길 포장도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部落內까지 들어오는 버스는 濟州市에서 2回線, 西歸浦에서 2回線으로 하루에 4回線 밖에 되지 않으므로, 흔히 里民들은 일주도로변까지 약 15분 정도 걸어나가서 버스를 타는 불편을 겪고 있다.

過去에는 食水로 '모살물'·'좁지물' 등의湧泉水를 利用했으나 지금은 거의가 上水道를 利用한다.

1972년에 電氣도 架設되었으며, 電話는 里事務所에 行政電話 한대가 있어서 住民들이 外部와 連絡을 취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불편이 따른다. 一周道路邊에서 마을까지 電話線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있어 困境에 있는 실정인데, 篤志家 等の 後援이 없이는 不可能한 상태다.

龍水里的 郵便業務는 高山郵遞局에서 取扱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65~80件이 配達되고 있다.

文化施設로는 TV가 29대, 라디오가 190대 (1973年度에는 157대), 新聞購讀이 10戶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에 마을文庫가 里事務所에 비치되어 있으나 農漁業에 關한 書籍들이 대부분이어서 利用者가 限定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敎養書籍이 비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表 3>

文 化 施 設

翰京面 龍水里

분 류	T V	라디오	신문	전축	시 계	녹음기	재봉틀
수 량	29	190	10	12	210	3	80

1976年 12月 現在
現地調査

龍水里内の 教育施設로는 國民學校 1個校가 있다. 國民學校는 龍水와 龍塘 사이에 位置하는데 龍水里에서 徒歩로 약 7~8分 걸린다. 1976年까지 26회에 걸쳐 卒業生 1,063名을 배출했는데, 1977년에는 41名(男 19名, 女 22名)이 卒業했다. 현재 國民學校에는 校長을 포함하여 7名の 敎職員이 근무하고 있다.

중학교에는 지금까지 高山中學校에 약 500名, 新昌中學校에 약 300名이 진학했었는데, 現在 龍水里 學生은 91% 정도가 高山中學校에 다니고 있으니(1973년 통계), 이러한 현상은 學區制 實施에 의한 것이다.

進學率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女子의 경우는 家事를 돌보거나 海女作業에 종사하기도 한다.

<表 4>

高 校 以 上 學 生 數

翰京面 龍水里

學校 年度	高山 商高	翰林 工高	翰 林 女實高	大靜 女高	濟州 女商	濟州 商高	濟州商 高(夜)	五賢高	第一高	濟州大學
1973年	23	12	2	1	3	2	2	2	1	3
1976年	13	3	2			5				

1976年 12月 現在
現地調査

公認宗教로는 基督教, 天主教, 미륵도 등이 있다. 基督教은 예장과 (合同派)인 韓國基督教 예루살렘敎會(1970年 創設)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수교회(1932年 創設)가 있다. 天主敎會는 龍塘으로 가는 법기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륵도는 國際道德協會 龍水出張所(1969年 創設)의 이름으로 家庭에서 敎理를 傳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寺刹이 없어서 佛敎信徒들은 翰京面 板浦里나 高山里에 있는 절에 다니고 있다. 各 宗教別 信徒數는 <표 5>와 같다.

<表 5>

宗 教 別 信 徒 數

翰京面 龍水里

종교별 성별 연도	예수장로교회		예루살렘교회		천 주 교		미 륵 도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1973년	30	75	15	25	10	30	5	15
1976년	30	70	10	20	15	35	10	20

資料: 龍水里事務所 提供

1976年 12月 現在

한 마을에 新舊敎의 敎徒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또한 이 마을에는 절은 없지만 佛敎信徒數가 많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部落祭로서의 醺祭 등은 몇년전에 廢止되어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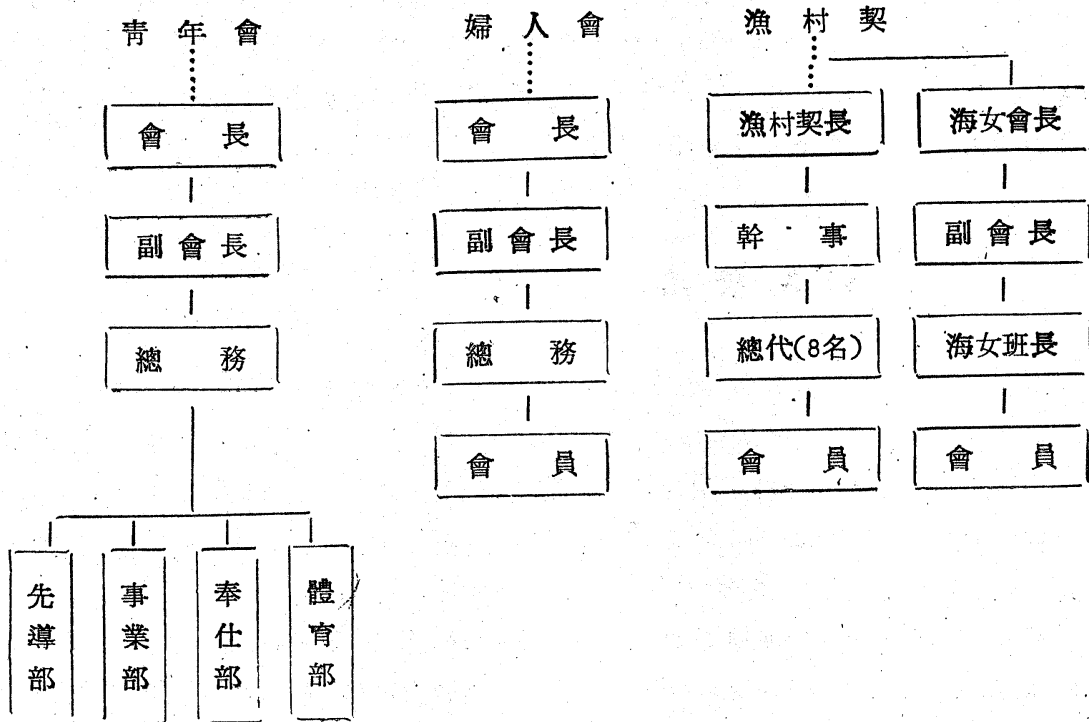
이 마을의 行政組織은 里長 1人和 새마을指導者 5人(男 3·女 2人)밑에 各 班에서 選出된 開發委員 5人, 班長 11人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을 運營에 協助하고 있는 青年會·婦人會·4H클럽·漁村契(海女會 포함) 등이 있다.

1973年度の 開發委員會는 13名으로 이루어졌었으나, 그후에 各 班에서 1名씩 選出하여 11名이었다가 現在에는 5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青年會나 婦人會는 잘 運營되고 있으나 4H클럽은 그 活動이 미미하다. 그 이유는 創立會員들이 學校를 졸업하면서 軍에 入隊하거나 事業 등 其他 일로 他地로 進出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그러나 '常綠4H'라는 명칭을 '龍岩4H'로 改稱하고 誠實한 새출발을 꾀하고 있다.

<表 6>

公 式 機 構 組 織 表

(翰京面 龍水里)



婦人會는 1968년에 創立을 보았는데 마을청소, 특히 節婦岩 附近의 청소 및 生産能率 擴大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主要事業은 '開發委員會'가 맡는 셈이니 1972년부터 착수한 마을 안길 포장을 비롯하여 會館建立과 선창가의 포장, 그리고 電氣事業 등에 걸쳐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

漁村契의 活動도 상당히 활발하다. 다른 마을보다 풍부한 海産物을 生産할 수 있는 與件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第一種共同漁場의 管理와 養殖場의 設置가 그 첫째 目標였다. 이곳 裸潛漁場에는 他地方 潜水夫들이 出沒하는 傾向이 있는데 대응책이 미비하여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海女들이 직접 헤엄쳐 가서 쫓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養殖場은 融資 55만원과 自體負擔 75만원으로 설치되었는데 현재 4년이 되었으며 마을에서 관리한다. 1975년에는 600만원의 收益을 올리는 등, 마을 소득증대에 공헌하고 있다. 共同漁場에서 漁獲되는 主要海産物은 전복과 소라다. 海産物의 販賣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收益은 人員數와

勞力에 따라 分配하고 있다.

硯子磨는 11個所에 있었으나 1970년도까지 완전히 헐렸다. 殘存 名稱을 보면 ‘범절돌방에’(2개소) · ‘쟁게목돌방에’ · ‘뒷가름돌방에’ · ‘주구동산돌방에’ · ‘웃동네돌방에’ · ‘앞동네돌방에’ · ‘장안돌방에’(2개소) · ‘지사계돌방에’ · ‘엇덕동산돌방에’ 등이다.

Ⅳ. 產 業 構 造

住民 대부분이 農業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海產物이 豊富한 漁場을 지니고 있으므로 水産業의 비중 또한 크다. 農土는 거의가 酸性 土壤이기 때문에 벼 · 보리 · 감자 · 고구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副業으로서의 特用作物 栽培는 거의 없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짚으로 새끼를 꼬거나 가마니를 짜는 것이 고작이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구마로써 절간 고구마를 만들어 더욱 많은 收益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마을의 經濟生活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農業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揚水施設이 되어 있지 않아 가뭄이면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점이다. 반상회에서든 여러번 論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손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農家の 副業 中에서 肥肉牛의 生産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4~7年生까지의 소를, 가을철에 풍부한 사료를 비축하여, 겨울철 3~4개월(11월~3월)동안 肥肉시키는 것이다. 현재 龍水里의 肥肉牛數는 약 160~170頭に 이른다.

그리고 森林地가 많지만 國有林은 없고 거의가 私有林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90% 이상이 海松이며 收益은 거의 없다.

이 마을의 水産業 역시 經濟的으로 막대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미역은 마을 共同漁場에서 養殖이 되고 있으며, 근래에 전복 · 소라 등의 상품가치가 오르자 所得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다.

소라 · 전복 · 문어 등은 사시사철 採取되고 있으나 해삼 · 미역 · 톳 등은 그렇지 못하다. 해삼은 봄에 약 2個月 밖에는 採取가 不可能하여 큰 수익은 못 올리며, 미역 역시 商品價值는 없으므로 各 家庭마다 日常 食用으로 조금씩 採取하는 實情이다. 지금도 미역을 採取하고 있지만 海岸보다는 2km쯤 떨어진 遮歸島까지 가서 채취하고 있다. 採取時의 交通手段으로

<表 7>

1976年度 海産物 漁獲高

翰京面 龍水里

種類	소 라	전 북	해 삼	문 어	돛
漁獲高	1,500kg	500kg	100kg	300kg	7,200kg
總額	825,000원	1,25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0원

資料: 龍水里漁村契 提供
1976年度

는 마을의 조그만 동력선이나 風船을 이용한다.

돛의 생산 역시 一定한 期間을 定해 1년에 1회에 걸쳐 採取하고 있는 데, 공동으로 生産하여 마을길이나 海邊에 넣어 놓고 말린 다음 里倉庫에 보관하였다가 公開入札로 販賣, 그 收益을 參與한 契員에게 分配한다.

예전과 달라서 海女들의 收益이 上昇一路에 있으므로 女子들은 全部 海女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他地로 轉出, 또는 出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龍水里 海岸에서도 豊富한 海産物로 漁獲高를 올릴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은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현재 이 마을에 漁船으로는 '주낙'에 利用되는 돛단배(風船) 몇척이 있으며 最近에 建造한 發動船이 2척 있다.

家 族 構 造

目 次

I. 序

II. 家族의 構成

III. 家族의 類型

IV. 結

I. 序

龍水里는 海岸에 位置해 있는 濟州島의 典型的인 部落이다. 本里는 ‘버커리’(下洞)과 ‘법기동’ 등의 自然部落으로 形成되어 있다. 이 두 自然部落은 500여m 정도의 距離를 두고 있어서 分離된 듯이 보이나, 서로 밀접한 關係하에 生營하고 있다.

本 調査班은 편의상 戶數가 적은 ‘법기동’을 對象으로 하여 本 調査班員들이 미리 準備한 質問紙를 통해 집집마다 다니며 실제 家族에 關聯된 問題들을 調査하였다.

‘법기동’은 27家口가 居住하는 1個班으로, 班長은 里長과의 긴밀한 協助 아래 本 班內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本 濟州島는 環海의 섬으로 대부분의 部落이 海岸에 分布하고 있어서 海村的인 性格을 띠는 듯이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全的으로 생활을 바다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 端的인 例가 ‘법기동’의 경우인데, 27가구 중의 世帶主 職業을 살펴 보면 <表1>과 같다.

<表 1>

법기동 世帶主別 職業

翰京面 龍水里

職 種	農 業	漁 業	木 工	公 務 員	其 他
家 口	21	2	1	1	1

1973年 12月 20日 現在

<表 1>에서 農家の多數는 部落의 勞動人口가 農業에 投入되고 있음을 뜻하며, 漁業에 從事하는 人口가 적다는 것은 漁業의 零細性を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調査된 資料를 中心으로 家族構造를 整理하기에 앞서 우선 家族의 範圍를 정하면, 가족을 '한 울타리 내에서 家計를 共同으로 하는 夫婦와 그 血緣的 關係의 集團'이라 보고, 結婚하여 分家한 者는 除外하나 현재 出他하여 生活하고 있는 者는 家族員에 包含시켰다.

II. 家族의 構成

실제 조사상에 나타난 總 家口數는 27家口였으나, 그중 1家口는 不明確하여 除外시키고, 26家口의 統計만을 얻었다. 26家口의 總家族員數는 126

<表 2>

家 口 當 家 族 員 數

翰京面 龍水里

區 分	家 口 數	家口數 百分率	總 人 員 數
1 人家族	2 家口	8 %	2 人
2 人家族	3 家口	11 %	6 人
3 人家族	5 家口	20 %	15 人
4 人家族	—	—	—
5 人家族	4 家口	15 %	20 人
6 人家族	4 家口	15 %	24 人
7 人家族	5 家口	20 %	35 人
8 人家族	3 家口	11 %	24 人
計	26家口	100%	126人

1973年 12月 20日 現在

濟州島部落誌 (Ⅲ)

人이며 1家口當 平均 家族員數는 4.85人이다. 이 平均家族員數는 本道 平均 家族員數에 相應한다. (1972年度 濟州道 平均家族員數는 4.65人이고, 南濟州郡 平均家族員數는 4.74人이다)

家口當 家族員數는 <表2>와 같은데, 3人·7人家族이 가장 많고, 4人家族은 전혀 없다. 家口當 住居世代를 살펴 보면 <表3>과 같다. <表3>에서는 2世代 住居家族이 76%로 제일 우세한데, 이런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들로 구성되는 核家族制度는 本道の 一般的인 家族形態이다.

<表3>

家口當 住居世代

翰京面 龍水里

區 分	家 口 數	百 分 率
1 世代住居	4 家口	16%
2 世代住居	20家口	76%
3 世代住居	2 家口	8%
計	26家口	100%

1973年 12月 20日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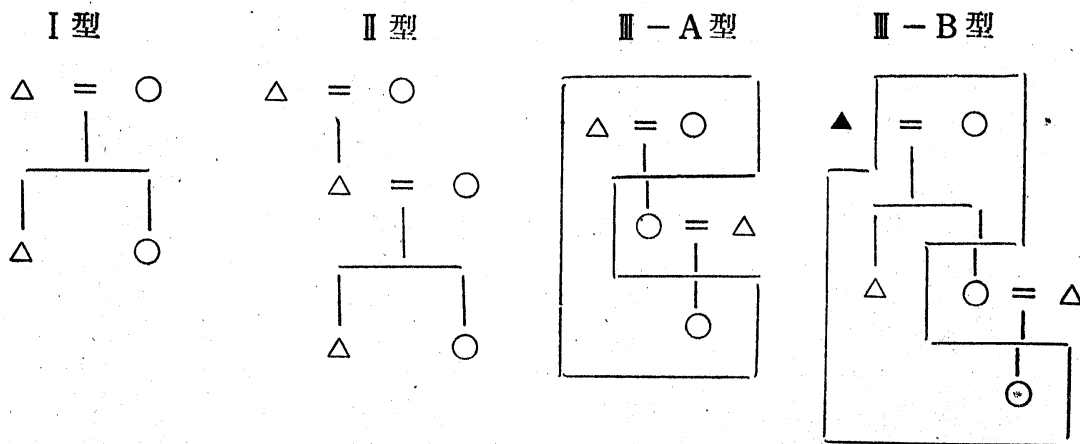
Ⅲ. 家族의 類型

家族의 類型은 편의상 <表4>와 같은 類型으로 나뉘어 살펴 볼 수 있다.

<表4>

家族의 類型

(翰京面 龍水里)



(※ III型에서 圈域은 同居하는 境界를 표시하며, ▲는 사망을 뜻함)

I 型은 夫婦 및 그의 未婚子女로 構成된 類型이며, II 型은 3世代가 同居하는 類型으로 祖父母 및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로 構成된다. (II 型에서 非長男의 既婚子女가 父母와 同居하는 경우는 本島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곧 分家할 것을 前提하고 同居하는 경우이다) III-A 型은 祖父母가 外孫女를 데리고 사는 경우이며, III-B 型은 祖母가 子와 外孫女를 데려 사는 경우이다.

<表 5>

類 型 別 家 口 數

翰京面 龍水里

I - 完型	15家口	II - 完型	1 家口	III - A 型(I 變型)	1 家口
I - 父缺型	4 家口	II - 祖母父缺型	1 家口	III - B 型(II 變型)	1 家口
I - 子女缺型	1 家口				
I - 夫子女缺型	2 家口				
總26家口 // 累22家口		累2 家口		累2 家口	
百分率 // 84%		8 %		8 %	

1973年 12月 20日 現在

<表 5>에서 보듯 I 型은 전체의 84%로 核家族型의 一般化 推移를 엿볼 수 있다. II 型 中 本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夫婦 및 既婚子·子婦·未婚子女와 孫子女로 構成되는 形態가 없는 것은 調査對象家口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III 型은 老父母의 적절한 生活을 달래드리기 위해 外孫女를 同居시키는 事例다.

IV. 結

家族構造의 核化現象은 現社會 推移에 當연한 事實이겠으나, 本 '범기동'의 경우는 比較的 많은 편이다. 이런 점은 本 '범기동'의 세대주 평균 연령이 51歲란 데에서도 강력하게 시사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30代의 젊은 層들이 離鄉 生營하고 있음을 말해 주며, 장차 이들이 결혼할 경우

濟州島部落誌(Ⅲ)

分家하여 他地로 나가서 살 可能性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現 農漁村의 一般現象이라 감안한다면, 農漁村의 人力資源 解決問題나 農漁村 育成對策 等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외에 本 '범기동'의 姓氏比率을 보면 27가구 중 14가구가 左氏이며 나머지 13가구는 高·강·梁·金·崔 및 其他 姓이어서 左氏同族部落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古老에 의하면 左氏들에 의해 設村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方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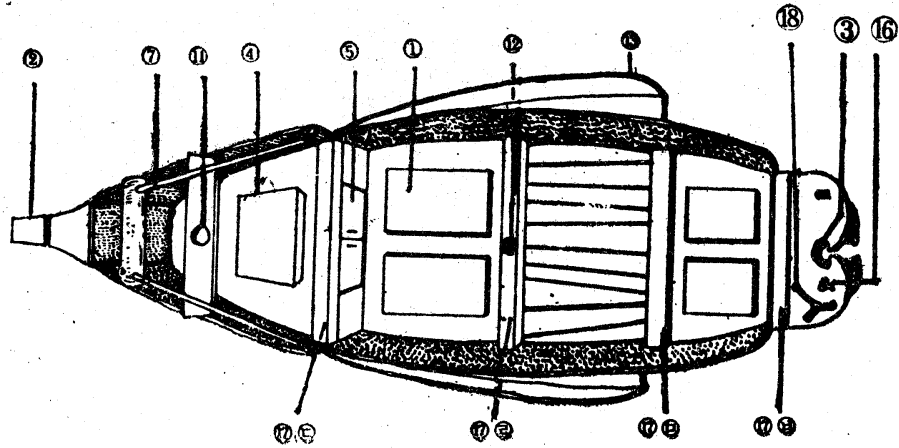
調 查 協 助 者

高	昌	花 (男, 68歲)	金	元	龍 (男, 65歲)
高	京	浩 (男, 48歲)	金	忠	南 (男, 42歲)
金	吉	厚 (男, 41歲)			

目	次
I. 漁 事 語 彙	
II. 農 事 語 彙	
III. 地 名	
IV. 其 他	

I. 漁 事 語 彙

1) 帆船에 관한 語彙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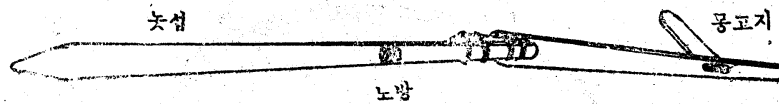
<그림 1>

(1) 船體語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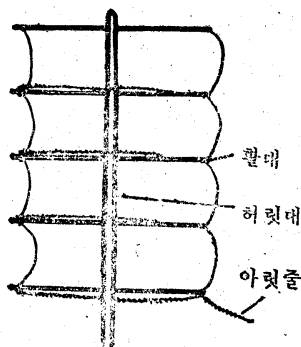
- ① 넷끼/후다 : 帆船의 갑판 아래에 있는 空間으로, 잡은 고기를 뒀다.
- ② 칼치 : 帆船 이물의 뽕죽한 곳.
- ③ 치통무니 : 배의 키를 끼우는 구멍.
- ④ 이물간빵 : 帆船의 이물 밑의 空間을 가리키며, 雨天時에는 대피소 역할을 한다.
- ⑤ 간빵문 : 이물간빵으로 들어가는 門.
- ⑥ 도지개 : 7字形으로 된 나무인데 배의 밑과 옆부분을 꼭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보통 좌우에 4개씩 8개가 있다.
- ⑦ 나와기 : 帆船의 이물 좌우에 ㄱ字 모양으로 세워진 것.
- ⑧ 밋 : 帆船의 제일 아래 부분.
- ⑨ 부자리 : 帆船의 밑과 左右 兩邊으로 비스듬히 接屬된 나무.
- ⑩ 지레베기 : 부자리와 帆船 옆부분 사이에 接屬된 나무로, 비스듬히 左右 양쪽에 있다.
- ⑪ 이물대구래 : 앞 돛대를 세우는 구멍.
- ⑫ 대구래방석 : 뒷쪽의 돛대를 세우는 틀의 받침대.
- ⑬ 파락 : 帆船의 左右 옆날개인데, 무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
- ⑭ 파락돌림 : 파락을 배 바깥쪽에서 두른 것.

- ⑮ 파락널 : 파락의 바다.
- ⑯ 노쫓 : 노(櫓)를 저을 때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쇠로 된 구슬을 받친 모양의 것으로 배의 뒷전과 左右 양날개에 하나씩 3개가 있다.
- ⑰ 명에 : 帆船上的 橫木으로, 보통 7개인데 位置에 依해 이름이 달라진다.
- ㉠ 돌명에 → 배의 맨 앞에 있는 橫木으로 닻줄을 맨다.
 - ㉡ 이물명에 → 앞에서 두번째 橫木으로 上下 두개가 있다.
 - ㉢ 정판명에 → 이물간뺨 근처에 있는, 앞에서 세번째 위치한 橫木.
 - ㉣ 한장명에 → 배 中心에 있는 橫木.
 - ㉤ 고불명에 → 배의 뒷쪽에 있는 2개의 명에로, 하나는 치통무니에 또 하나는 한장명과 치통무니의 가운데에 있다.
- ⑱ 강드레 : 배의 고불에 Y字型으로 세워진 것으로 샷대를 걸치거나, 뒷돛대를 세우고 눕힐 때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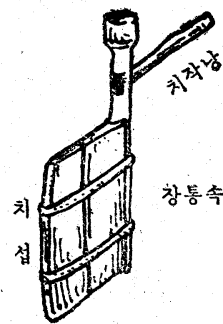
(2) 帆船 附屬物 (그림 2·3·4 참조)



<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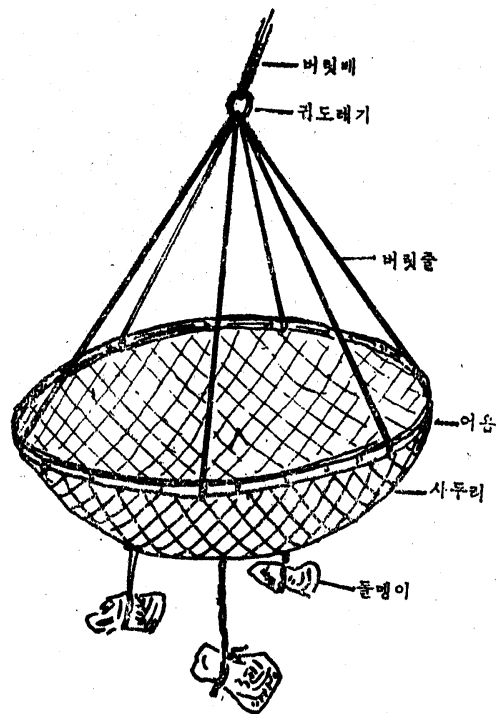
<그림 4>

- ① 치 : 방향을 잡는 키. (그림 4 참조)
- ② 허릿대 : 배의 뒷편의 돛대.
- ③ 총 : 허릿대를 고정시키는 2개의 줄로 한장명과와 나와기에 맨다.

- ④ 첫걸이 : 양쪽 날개의 노(櫓)로, 뒤쪽 노보다는 조금 작다.
- ⑤ 도쫓노/하노 : 배의 뒷노(櫓).
- ⑥ 닻가지 : 닻의 가지.
- ⑦ 초석 : 돛대의 바람받이를 가리키며, 앞의 것을 이물초석 혹은 야호초석이라고 부르며, 뒷것을 허리초석이라 한다.
- ⑧ 아딧줄 : 風向・風速에 따라 초석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줄.
- ⑨ 열넛대/사울대 : 샛대.

2) 漁 具

(1) 자리사들 (그림 5 참조)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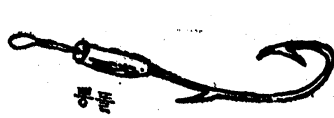
‘자리’를 잡을 때 쓰이는 그물로서, 쪼개진 4개의 대나무로 4m 정도의 원을 만들고 그물을 거는데, 이 때 대나무를 ‘어음대’라고 하며, 그물은 隨時로 걸고 뺄 수 있는 것이 特異하다.

- ① 버릿줄 : 4~5m 정도의 줄로, 12개가 어음대에 매어져 있다.
- ② 버릿배 : 그물을 올릴 때 잡아당기기 위한 밧줄인데, 12개의 버릿줄과 연결되어 있다.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 그밖에 자리사들의 附屬物로는 8~9kg 정도의 돌덩이가 자리사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2~3개 있다.

(2) 갈치잡이 낚시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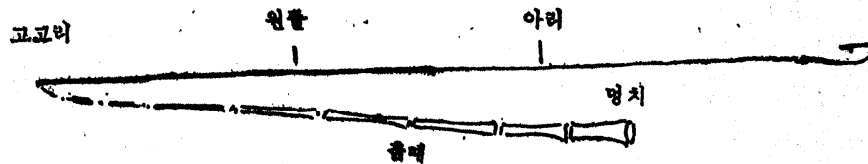


<그림 7>

① 꼬지게낚시 : 배를 운행시키면서 낚을 때 쓰인다.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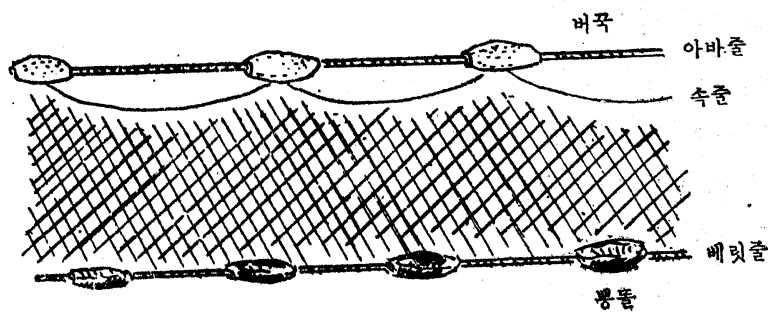
② 푸끔낚시 : 배를 정지시키고 낚을 때 쓰인다. (그림 7 참조)

※ 낚시대 部分名稱 (그림 8 참조)



<그림 8>

※ 그물의 部分名稱 (그림 9 참조)



<그림 9>

3) 海 產 物 類

(1) 게(→方言으로 껍이·깡이·깡이)

① 베열껍이,

濟州島部落誌(Ⅲ)

- ② 논렁이 : 논이나 물도랑에 사는 게.
- ③ 뭍렁이 : 해초의 일종인 '뭍'에 붙어 사는 게.
- ④ 놀렁이 : 바다 속에 사는 붉은 색의 게로 동작이 매우 빠르다.
- ⑤ 뚱렁이 : 바닷물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데에 사는 게.
- ⑥ 펄꾸이 : 개펄 속에 사는 게.
- ⑦ 상궁이.
- ⑧ 춤궁이.
- ⑨ 쫓궁이.

(2) 우 렵

- ① 네음네기 : 水深 40~50m 정도 되는 곳에 살며, 맛이 매우 좋고, 붉은 바탕에 흰 반점이 8개 있다.
- ② 감과귀 : 돌틈에서 낚을 수 있는 거무스름한 색을 띤 고기.
- ③ 왕우렁 : 붉은 바탕에 흰점이 박혔으며 큰 것은 60cm 가량 된다.
- ④ 선우렁.
- ⑤ 돌우렁.
- ⑥ 본지우렁.

(3) 보 말

- ① 먹보말 : 검은 색이며 껍질이 매끄럽다.
- ② 가마귀보말 : 길쭉하고 매끈하며 와선형이다.
- ③ 마다쌀 : 삶아 먹으면 그 맛이 좀 매운 듯하다.
- ④ 수두리보말.
- ⑤ 춤보말.
- ⑥ 문데기.

(4) 거드레기 : 비어 있는 작은 소라 껍질이나 보말껍질 속에 살며, 삶으면 빨갱게 된다. 집게.

(5) 빨록쟁이 : 복어. 낚아 올리면 죽을 때까지 호흡기가 불룩불룩하며 공기를 들여 마신다.

(6) 고냉이방석 : 불가사리.

(7) 물미줄 : 말미잘.

(8) 북빠리 : 능성어.

(9) 덕게 : 가자미.

(10) 소 : 지렁이 모양이며, 배 밑바닥에 붙어 구멍을 뚫는 벌레로, 머리는 거무스름하며 큰 것은 담배 굵기만 하다.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 (11) 핀마구리 : 오징어 모양인데, 10개의 발이 있으며 큰 것의 무게는 한 장정이 겨우 들 수 있다고 한다.
- (12) 조구쟁기 : 아주 작은 소라.
- (13) 벨근쟁이 : 돔과 비슷하고 몸은 돔보다 약간 희며 머리는 불그스름한 고기. 큰 것은 30cm 가량 됨.
- (14) 놀치 : 날치.
- (15) 손치 : 솔치.
- (16) 가다리비에기 : 방어 모양의 고기.
- (17) 붉은불락 : 붉은 색깔의 불락.

4) 干 滿

陰曆25日 : 혼물

27日 : 서물

29日 : 다선물

1日 : 일곰물

3日 : 아흙물

5日 : 열호물

7日 : 아끈채기

9日 : 게므슴

11日 : 두물

13日 : 너물

15日 : Q선물

17日 : Q돔물

19日 : 열물

21日 : 열두물

23日 : 한조금/한채기

陰曆26日 : 두물

28日 : 너물

30日 : Q선물

2日 : Q돔물

4日 : 열물

6日 : 열두물

8日 : 한채기

10日 : 혼물

12日 : 서물

14日 : 다선물

16日 : 일곰물

18日 : 아흙물

20日 : 열호물

22日 : 조금

24日 : 게므슴

※ 웨사리 : 음력 5日에서 10日까지의 6日間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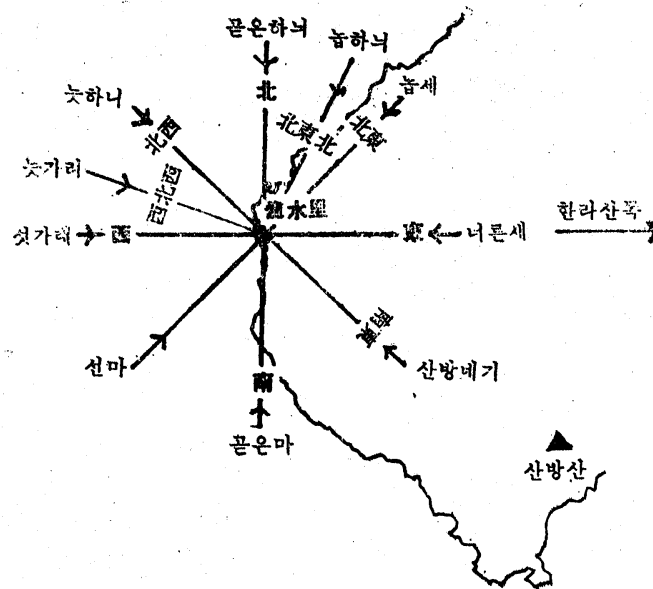
※ 반물채기 : 滿潮에서 干潮로 되어 갈 때를 일컬음.

※ 물채기/물래기 : 滿潮에서 썰물로 되기 직전을 말한다.

5) 風名 (그림10 참조)

本里로 불어오는 바람을 住民들은 漁業條件 卽 操業與否에 따라 順風과

惡風으로 나누고 있다.



<그림10>

順風은 南·北風系인 '고든마포름' · '고든하늬벼름' · '곶하늬벼름' · '곶세' 등이며 惡風은 東·西風系인 '산방네기' · '너른세' · '곶가래' · '곶가리' · '선마포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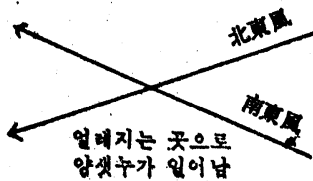
- ① 산방네기/을진풍 : 한라산 남쪽에서 불어오는 南東風인데, 비를 동반하여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
- ② 곶세 : 한라산 북쪽에서 불어오는 北東風.
- ③ 너른세 : 한라산 고고리(頂上)에서 불어오는 바람.
- ④ 곶가래/곶가리/갈벼름 : 西風으로서 이 바람이 불면 물결이 크게 일어 바닷물의 피해가 크다고 한다.
- ⑤ 곶가리 : 西北西風.
- ⑥ 곶하늬/마포름 : 正南風.
- ⑦ 선마포름 : 南西風.
- ⑧ 하늬벼름/곶하늬 : 正北風.
- ⑨ 곶하늬 : 北西風으로 이 바람이 불면 구름이 많이 끼고 눈이 내린다.
- ⑩ 곶하늬 : 北東北風.

※ 자나미/메우리늪름 : 이 바람은 섬이나 산에 부딪쳐 감돌아 오는 바람으로, 本里 浦口 앞에서는 南東風이 불어 오다가 생기는데, 초속이 12~13m 정도로 배를 짓지 못하며, 물결조차 감돌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6) 波 名

① 삼성제누(三兄弟波) : 波가 세 번 꺾이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물의 흐름이 센 곳에서, 그 맞은편 방향으로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이러한 물결이 생긴다고 하며, 배질에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② 양셋누(그림11 참조) : 이 波는 방향이 틀린 두 바람이 함께 불 때 그 교차되는 곳에서 생기는데, 만약 배가 그 지점에 있을 때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하며, 後에 한쪽의 勢力이 약해지면 비로소 다른쪽의 勝勢를 이용하여 前進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교차되는 것을 '얼레진다'라 말한다.



<그림11>

7) 其他 海事 語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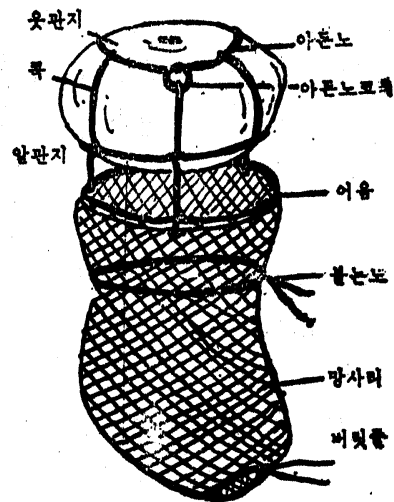
① 본조갱이 : 潜水時 海女가 숨이 차서 좋은 採取物을 못 캐고 나올 때에 두고 오는, 일종의 표지로 쓰이는 전복 껍질을 가리키는데, 전복의 속껍질은 희므로 물속에서도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② 봉덕 : 海女들이 불을 쬐는 곳.

③ 걸밭 : 바다 밑에는 돌들이 깔리어 있는데, 낚시나 그물의 밑부분이 돌에 걸릴 때, 걸리는 그곳을 말한다.

④ 배박다 : 배를 정지시키다라는 말로 정박하다는 말과는 구별하며 쓴다.

※ 테왁의 部分名稱 (그림12 참조)



<그림12>

Ⅱ. 農 事 語 彙

1) 農 耕 語 彙

- ① 서얼레 : 씨레.
- ② 훈파니 : 크기에 無關하게 논이나 밭 하나를 일컫는 말.
- ③ 드루켐이 : 200坪이 안 되는 작은 논이나 밭을 이름.
- ④ 부러기 : 곡식의 이삭이 봉우리를 맺은 상태.
- ⑤ 메놓다 : (고구마나 벼의) 묘를 놓다.
- ⑥ 나룩메 : 뽑으러 가다.
- ⑦ 고고리 : 곡식의 이삭.
- ⑧ 고지 : 이랑.
- ⑨ 고량 : 골.

2) 牛 名

(1) 毛色에 의한 分類

- ① 황색 : 黃色 소.
- ② 신부릉이 : 黃色과 黑色이 섞여진 소로 特히 숫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③ 검은색 : 黑色의 소.
- ④ 속색
 - ㉠ 검은속 : 黑色과 灰色이 섞인 소.
 - ㉡ 곤속 : 黃色과 灰色이 섞인 소.
- ⑤ 어럭색
 - ㉠ 검은어럭 : 黑色 바탕에 흰 반점이 있는 소.
 - ㉡ 노랑어럭 : 黃色 바탕에 흰 반점이 있는 소.
- ⑥ 태성박이 : 이마 부분이 하얀 소.
- ⑦ 배어럭 : 배 부분이 하얀 소.

(2) 角形에 따른 分類

- ① 天上角 : 뿔이 하늘로 곧게 向함.
- ② 上向角 : 뿔이 위로 비스듬히 나감.
- ③ 下向角 : 뿔이 아래로 버드러짐.
- ④ 平向角 : 뿔이 양 옆으로 곧게 뻗음.

- ⑤ 前向角 : 뿔이 앞으로 향함.
- ⑥ 後向角/젓작부리 : 뿔이 뒷쪽으로 향함.
- ⑦ 天地角 : 좌우 뿔이 上下로 엇게 뻗음.

(3) 牛行에 의한 分類

- ① 안애오리 : 걸을 때 다리를 안으로 휘굽어 걷는 소.
- ② 밧대오리 : 걸을 때 밖으로 다리를 내딛는 소.

※ 밧을 갈 때 소를 부리는 말을, 語調를 넣어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느려/사 : 밧갈이를 할 수 있도록 두둑에서 골로 내려 서라는 命令.

머/섯게 : 왜 움직거리지 않고 머적머적하느냐 하는 뜻으로 움직이라는 命令.

형 : 느적느적하지 말고 좀 빨리 걸으라는 뜻의 命令.

어드/레 : 牛行이 곧지 않고 두둑에 오르려 한다든가, 방향없이, 가려고 할 때,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는 뜻으로 發하는 命令.

3) 動植物名

(1) 動物・昆蟲類

- ① 독달귀 : 도마뱀.
- ② 고치산테 : 고추잠자리.
- ③ 초록/산테 : 잠자리.
- ④ 물쟁 :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동작이 매우 느리며 입이 큰 고기이다. 등에 있는 뽕족한 것(1개)을 흔들거리며는 먹이로 착각한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는데, 이 때 큰 입으로 물을 한꺼번에 빨아들이면서 고기들을 잡아 먹는다.

(2) 植物名

- ① 베체기 : 질경이.
- ② 뭍 : 모자반.
- ③ 뭍피 : 논에 나는 피(稗).

Ⅲ. 地 名

- ① 장안동(장안내)・전동(앞동네)・웃동네・주전동・지름장동네・와포

- 동 · 벵걸 · 용당 · 당알 · 탐알 · 뒗가름 · 오섯커름
- ② 엉덕동산(절부암) · 붉은동산 · 매골동산 · 진동산 · 소낭동산 · 벵걸동산 · 당산봉 · 알오름 · 쉼머리 · 제성머리
- ③ 구리물 · 외눈물 · 짚은못 · 박암물 · 군암물 · 시구물 · 추승물 · 화상수 · 응수 · 벵텡수(병든물) · 삼백승물 · 세리승
- ④ 사장밭 · 동벵뒤 · 서벵뒤 · 너븐땅 · 알멍쟁이 · 웃멍쟁이 · 광쟁이 · 선쟁이
- ⑤ 지사개 · 감옥개 · 구녕개(軍營浦) · 북에원 · 즈남케 · 왕젯케 · 문능케 · 알케 · 장택코 · 코지 · 선주녀코지 · 옷아즌여 · 수른여 · 두덕바위
- ⑥ 개경목 · 진발목 · 두름목 · 손산목

Ⅳ. 其 他

- ① 조오천 : 지남침.
- ② 은에 : 안개.
- ③ 물빨 : 물흐름.
- ④ 께삭하다 : 괴이하다.
- ⑤ 복식하다 : 욕심을 부려 지나치게 많이 먹다.
- ⑥ 섬비/섬비낭 : 뿔나무.
- ⑦ 적배 : 버짚으로 만든 밧줄.
- ⑧ 문드리다 : 떨어뜨리다.
- ⑨ 지숙 : 제사 때 쓰이는 고기.
- ⑩ 원 : 浦口 모양으로 자그맣게 바닷물이 들어가는 곳.
- ⑪ 겻주멩이/겻주멩기 : 호추머니.
- ⑫ 개동독닥 : 대통령대통령 매달린 상태.
- ⑬ 니끼리다 : 미끄러지다.
- ⑭ 숨쳐명디다 : 숨겨다니다.
- ⑮ 적서기신 : 짚신.
- ⑯ 질왓 : 돌멩이가 없고 진흙으로만 된 밭. 또는 그런 곳.

※ 속 담

‘고치산테가 오민 오징어가 온다’ : 고추잠자리가 오면 오징어가 온다.
 ‘밤배질은 귀 목곡 눈 복곡 하라’ : 밤에 배질을 할 때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쉐로 못나면 여자로 난다’ : 소로 태어나지 못하면 여자로 태어난다.

즉 여자가 일을 많이 한다는 뜻.

‘찍수세 속에서 낫다’ : 짚 속에서 낫다는 뜻으로 사람의 머리가 시원
치 못하다는 말.

‘쉐테우리 헝기도 어려운디 사름테우리 헝기가 그렇게 쉬운가?’ : 소
(牛)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지도하기가 그렇게 쉬운가라는 뜻
으로 사람을 지도하기가 어렵다.

‘논 불리는 송애기 곤져’ : 비가 올 때 짚신을 신어서 다리가 온통 흙
투성이가 된 상태를 말함.

‘빈 젓 먹은 주식’ : 생모 젓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젓과 함께 먹은
아이(유모의 젓이 아님)라는 말로 머리가 둔한 아이를 비웃을 때 에
하는 말.

說 話

目 次

- I. 節 婦 岩
- II. 못 (釘) 이야기
- III. 소 리 개
- IV. 행 의 좌 랑
- V. 쇠 기 신

I. 節 婦 岩

李朝末頃에 龍水里에는 ‘강사철’(康士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무척 가난하여 제나이에 혼례를 못 치르고 30이 되어서야 겨우 高氏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다.

그는 때때로 ‘죽섬’(竹島·차귀섬·누운섬)에 가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바구니를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잇기도 하였는데, 혼례를 올린 지 3일이 되자 그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죽섬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서 그만 水中孤魂이 되고 말았다.

그의 처 高氏는 초석과 짚신 12켤레를 준비하여 남편을 찾아 나섰다. 하나 짚신이 다 닳도록 해안가를 헤매어도 남편의 屍身은 나타나지 않았다. 高氏는 낙심한 끝에 그곳 해안가 팽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니, 이상하게도 그 날 밤에 高氏가 자살한 나무 밑으로 남편의 시체가 떠올랐다.

이렇게 되자 동리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시체를 高山峰에 합장하고 그 거룩한 精神을 기리니 곧 관가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判官이었던 愼裁佑는 이를 節婦岩이라 명명하여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고, 동리의 해녀들은 해마다 뜻을 모아 음력 3月 15日이면 제를 올린다.

Ⅱ. 못(釘) 이야기

옛날 제주 삼거리에 이상한 큰 못(釘) 하나가 박혀 있었다. 그런데 이 못은 흔들리기는 하면서도 절대로 뽑히지 않았는데, 부정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은 여자만이 이 못을 뺄 수 있었다고 전해져 왔다. 또한 이 못을 빼는 사람은 평생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도 전해져서, 누구나 이 못을 한번 뽑길 원했었다.

어느날 고을의 한 선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착하고 청렴하게 살고 있으니 내 아내만은 그 못을 뺄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누이의 집에 들렀던 김에 자기의 생각을 누이 동생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고난 그 누이는 선비에게 한 계교를 가르쳐 주었다.

선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을에 남편을 100명 가진 여자가 있으면 그 못을 빼고 평생을 영화롭게 지낼 수 있을텐데!” 하고 누이가 일러준 대로 탄식을 하니, 그 부인이 손을 꼽으며 세다가 “중놈도 된답디까?”라고 물었다. 그는 깜짝 놀라 당장 아내를 내쫓고 창피를 면했다.

그런데 그의 누이는 옷을 갈아입고 그곳에 가서 동쪽을 향해 세번 절하고 못을 당겼으나 뽑히지 않았다. 이에 그녀는 울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고백하고 다시 당기니 드디어 그 못이 뽑혔다.

이렇게 해서 일찌기 남편을 잃고 수절하던 선비의 누이는 고을 사람의 칭송을 받으며 평생을 영화롭게 살았다.

Ⅲ. 소 리 개

소리개는 거짓말 잘하고 게으른 머슴의 화신이라고 전한다.

옛날 아주 게으르기로 이름난 최태우리(머슴)가 살았었다. 그는 주인이 소에게 물을 먹이라고 하여도 싫증이 나면 최출통(소에게 먹이를 주는 그

릇)에 오줌을 싸서 그 통을 적시고는 주인의 눈가림을 하였다. 주인은 통이 적셔져 있는지라 물을 잘 먹였거니 하고만 생각하였다.

머슴의 눈가림은 석달이나 계속되었는데, 하루는 머슴이 다른 고을로 심부름을 떠난 사이, 주인이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냇가로 소를 끌고 갔다. 물을 본 소는 하도 오랫동안 물을 굶은 터라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주인은 이제도록 머슴이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고 패썹하게 생각한 나머지 머슴이 돌아오자 입을 쥐어 뜯어 머슴을 죽게 하였다. 그 죽은 머슴이 소리개로 변하여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였는데, 가물다가 비가 오려면 휘익 휘익 과거의 게으름을 참회하며 운다고 한다. 또한 부리마저 구부러져 있어서 땅에 있는 물은 마시지 못하고 날개깃에 매달린 물방울만 마시며 목을 축인다고 한다.

Ⅳ. 행 의 좌 장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龍水里에는 ‘좌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체격은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동작이 민첩하고 힘이 壯士였다.

그런데 어느날 龍水·頭毛·新昌 사이의 바닷가에 큰 고래 한마리가 떠올라 왔다. 동네 사람들은 이 고기를 똑같이 나누어 갖다 먹기로 하였는데 ‘좌행’은 욕심이 있어 그의 아이들에게 각각 한 집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를 본 감시원은 고래 고기를 다 빼앗고 아이들만 돌려 보냈다. 이에 분개한 ‘좌행’은 현장으로 달려가 頭毛의 민물고씨인 감시원의 며살을 잡고 고기를 도로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좌행’은 혼자였고 頭毛리의 민물고씨는 여러 사람이어서 ‘좌행’에게 지려 하지 않았다. ‘좌행’은 바닷가의 커다란 먹돌 두 개를 양손에 들고 “龍水里의 ‘좌행이’가 頭毛리의 민물고가 몇 사람을 못 당하겠느냐? 성산(常山) 좌룡(趙子龍)이가 項羽의 힘에 모자랐다고는 하지만 龍水里 ‘좌행이’는 頭毛리의 민물고가 몇놈쯤 능히 당할 자신이 있다. 자, 봐라”하며 두 손에 들고 있던 단단한 먹돌을 마주치니 먹돌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를 본 頭毛리의 민물고가들은 겁이 덜컥 나서 “고기는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싸우지 말자”며 모두 도망가 버렸다. 그러나 ‘좌행’은 분육한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한다.

한번은 ‘좌행’이 大靜鄉校에 볼 일이 있어 들르니 마침 大靜고을의 장수 하나가 힘자랑을 하고 있었다. “나와 씨름을 해서 이기는 자가 있으면 술과 고기를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겠다. 자, 그러니 자신 있는 자는 나와 씨름을 하자” 龍水里쪽에서 온 사람들은 ‘좌행’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씨름하기를 권하였다. 이에 ‘좌행’은 “씨름쪼은 자신이 있지만 저 사람이 내놓겠다는 술이며 고기에 대하여 어떤 보장이 있어야겠다”고 하며 그 보장을 요구했다. 大靜사람들은 ‘좌행’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자기들이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드디어 씨름이 벌어졌는데 ‘좌행’은 大靜고을 장사를 단숨에 내던져 버렸다. 大靜고을 장사는 씨름에 진 것이 분하여 다시 팔씨름할 것을 제의했다. 팔이 짧은 ‘좌행’은 팔씨름에도 물론 자신이 있어 이를 승낙하고 팔씨름을 벌였다. 그러나 팔씨름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으나 마침내 大靜고을 장사가 죽을 힘을 내다가 그만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大靜고을 장사는 술과 돼지를 모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팔까지 꺾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에, 大靜고을 장사 5·6명이 ‘좌행’에게 복수하고 龍水里 마을의 유부녀를 훔치려고 숨어들었는데, 이를 안 이웃이 ‘좌행’에 버금가는 장사인 ‘귀먹은 서집사’에게 가 이 사실을 고했다. 원래 귀는 좀 어둡지만 힘이 센 이 사람은 “大靜고을의 5·6명 장사쪼은 행의좌장이 아니더라도 내 혼자 물리칠 수 있다”면서 ‘좌행’의 집에 당도했다. ‘귀먹은 서집사’는 ‘좌행’의 집을 포위하고 있던 장사들을 한손에 한사람씩 두사람의 상통(상투)를 한꺼번에 잡고는 서로 이마를 마주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좌행아! 저것들을 좀 봐라. 大靜고을 사람들은 우의가 좋아서 저렇게들 둘씩 있네” 하고 두사람씩 묶어진 大靜고을 장사들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龍水마을의 사람들이라든 大靜이든 新昌이든 어느 마을에서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었다 한다.

지금 龍水里에는 ‘좌행’의 증손이 살고 있다 한다.

V. 쉼 기 신

지금으로부터 150여년전에 高氏 집안에 ‘쉼기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체격이 크고 밥을 가마솥으로 하나씩이나 먹고도 모자라

는 황소 같은 사람이라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밥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그를 빌어서 일하려는 사람도 드물 정도였다. 게다가 집은 가난하고 자꾸만 남의 집에 가서 밥을 훔쳐 먹어서 말썽을 내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생각 끝에 물방애(연자매)에서 소 대신 채경을 끌어주는 일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그런 일마저 마을에서는 '췌기신'을 빌지 않으려 하였다.

집안에선 '췌기신'의 입성때문에 모두가 굶어 죽을 처지가 되니, 하는 수 없이 '췌기신'을 설득시켜 마을을 떠나게 했다.

이리하여 '췌기신'은 집을 나가 다시는 고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집안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췌기신 우던덜'(소와 같이 힘센 '췌기신'의 겨레붙이들)하면서 욕을 한다.

Ⅵ. 龍塘과 龍水 間의 通婚

龍水마을 앞바다에는 차귀섬이 있는데, 이 섬은 화단형(喪輿型)이어서 龍水里·龍塘里 間에 서로 결혼을 하면 후손이 없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가끔 결혼하는 일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龍水·龍塘 마을들의 第一種 共同漁場 紛爭이 있었으므로 두 부락민간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별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차귀섬을 소가 누운 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Ⅶ. 저 승 문

龍水里 마을 서쪽 浦口에 바다쪽에서 산으로 뚫린 동굴이 있으니 이를 '저승문'이라 일컫는다.

新昌二里(신흥동)에 또 하나의 굴이 있는데 '저승문'은 이 신흥동의 굴(窟)과 연결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다만 고양이를 '저승문'에 들여보내 그것이 신흥동의 굴(성굴)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고 한다.

'저승문'이라는 명칭은 그 동굴 위에 올라가서 동굴쪽을 내다보면 까마득히 바다와 깎아지른 절벽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느낌을 주며, 거기에서 떨어지면 저승으로 간다 하여 '저승문'이라 명명되었다고 한다.

民 謠

唱 者

좌	기	득 (女, 85歲)	박	순	이 (女, 63歲)
이	행	오 (女, 59歲)	박	영	권 (女, 58歲)
고	순	옥 (女, 49歲)	김	공	만 妻 (女, 50歲)
김	인	배 (男, 18歲)	양	천	일 (男, 12歲)

目 次

- | | | |
|--------|---|---|
| I. 勞 | 動 | 謠 |
| II. 童 | | 謠 |
| III. 語 | 戲 | 謠 |
| IV. 자 | 장 | 가 |

I. 勞 動 謠

1. 海 女 謠

1-1	찰찰가는	춤나무배야
	밋밋가는	미나무배야
	이물에 랑	이사공 싯곡
	산작명엔	애기선낭

濟州島部落誌 (Ⅲ)

고물엔
서드럭 안엔
앞발로랑
뒷발로랑
어는제랑

고사공 싯곡
화장눔 싯곡
허우치곡
거두치곡
저곳을 가코

(좌기득, 女, 85歲)

1-2 이여사나
우리 배는
이여사나
산도 물도
단디물로

이여사나
잘도 간다
이여사나
놀이 놀고
절이 논다

이여도사나
쳐라 쳐라
어기야 쳐라
잘도야 간다
인삼 녹용
소파 시명
정 부운들

이여사나
대여라 백여라

잘도 간다
약을 쓴들
너와 나와
홀 수 있나

우리 배는
이여사나
잘도야 간다
우리 나라
붙지않다
논밭전지
유기재물
이여사나

잘도 간다
이야리고라
잘도 간다
대통령도

소용엇다
소용엇다
이여사나

우리 아덜이

정리 많고

벤치 말며
우리 나라
뜯지 않다
잘 넘어간다
히야로차

대통령도
히야리고라
잘도야 간다
히야라차

(이행오, 女, 59歲)

1-3 히야사
우리 배는
울던목가
허리 알로
덕더리도
넘어난다
우리 팔재
손에 켜이
해쳐종스
어인 말고
이여도사나

히야사
잘도 간다
살던목가
잘도 간다
젓엄시민
이여도사나
무슨 팔재
백이면서
항단 말이
이여사나
교라교라사이

대동강이
모란봉
우리 둘이
벤홀 수도
이여도사나
웃으며
대동강
정든 님
요 내 속만
이여도사나

배를 젓어
덜망정
묵음이사
엽구낭이
교라구라사이
정처도
부리고
말삼에
풀려나 간다
이여사나

(박영권, 女, 58歲)

1-4 이여사
우리 배는

이여사나
잘도 간다

濟州島部落誌(Ⅲ)

공굴공굴
놈이 선낭
우리 선낭
양칩 선낭
히여사나

아무개야
우리 선낭
물로 훈저 왕
물론저
가게나 홉서

잘도나 간다
용왕 용신
우리 선낭
좁북 좋은
고동 좋은
가게나 홉서
이여사
이여사나

총각 차라
양석 싸라
이물에랑
고물에랑
허리때랑
물때 점점
이여사나

저고리 양복
갈던중이
히야티고라
히얀 구쭈

잘도 간다
배 빌리멍
안에 지자
잘도 간다
어가사호라

들어오라
가른 뱀랑
여곳으로
여쫓므로

이여사나
할마님아
가는 뱀랑
존 곳들로
개곳들로
어가사고라
이여사
이여도사나

물에 들게
대섬의 가게
이사공아
고사공아
화쟁아야
늦어나 간다
아가사고라

입던 자가
웬일이냐
고라사이
신단 밭에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초신 털벙이
이여사
사랑호리
가막솥 콩밥이

웬일이고
이여사나
먹단 자가
웬일인고

(박순이, 女, 63歲)

1-5 이여사나
청춘과수
병들까바
낭이한늘
눈비 올까
찬솔밭되
히어날까
히여사나

이여도사나
유복자는
수심이라
경태돌이
수심이라
안진 벗은
수심이라
이여사나

벙중에 잇는
상스나민
이여사나
역서역서
고페고페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우리 님은
어이하나
이여도사나
많구나마는
다 잊어 놓고
이여사나
잘 넘어간다

(이행오, 女, 59歲)

1-6 이여사나
이여사나
유수야
대동강
정든 님
간장만
이여사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경첩에
풀리고
호 말쌈에
녹이는다
이여사
이여도사나

물도 낭도
삼시 굶영
훈푼 두푼
부랑자
다 들어
이여사나

이 세상에
해녀바 피
한작 손에
한작 손에
사심용궁
어멍이랑
이여사나
이여사나

도라진 섬에
물질 흥영
모인 돈을
술잔에
가는다
이여사나

불쌍훈 건
더 잇는다
빚창 들고
태와 들고
내려갈 때
눈꼴 흥고
이여사나
이여사나

(고순옥, 女, 49歲)

1-7 족은 배에
추자 과탈
선개 떡을
이 내몸 살을

짐 하영 시경
서울에 드난
욕심은 아니
근심이 나

(좌기득, 女, 85歲)

2. 맏 돌 노래

2-1 이여도 흥라
어는제랑
훈저 밥 흥영
이여이여

이여도 흥라
이 ㄴ래 꼴앙
애기덜 주코
이여도 흥라

(좌기득, 女, 85歲)

2-2 이여이여
흥룻밤이
주억삼매

이여도 흥라
밀 닷말 ㄴ난
다섯이라라

시어머님께
시아바님께
임광 내는

둘 둥그려 두고
둘 둥그려 두고
훈착씩 먹나

(좌기득, 女, 85歲)

3. 방 아 노래

3-1 이여이여
살기 싫은
도람들명
가랜 말도
엇어나 진다

이여도허라
요시집 살젠
삼년을 사난
오랜 말도

이여이여
놈의 첩광
소리 나명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소남의 빚름은
살으매 옷다
이여도허라

(박영권, 女, 58歲)

3-2 이여이여
굴무기 방애에
이여 동동
헐루레비
웬귀통
굴무기 방애에
이여 동동
이여이여
높게 들렁
새나 동동

이여도허라
도애낭 절귀
방애로구나
작대기로
바튀명
도애낭 절귀
방애로구나
방애로구나
늑직이 노왕
맞아랭 훈다

(좌기득, 女, 85歲)

4. 발밟는 노래

4-1 어러러어러어러 어러러러가랴
요놈의 묵시야 높은 디만 불러나 보자

어려려려어 어려가하랑

산천초목은 나날이 젊어나 지건마는

우리 인생은 늙어만 지는구나

어려려려어 어려려 어려가하랑

(좌기득, 女, 85歲)

4-2 어려려려어 어려어하랑

바당ㄴ찌 밋드랑 갈아 농곡

구름ㄴ찌 종지랑 세와 농곡

샛벵ㄴ찌 노복을 앓정

이제만이 아범이 보민

제기 아니 반가우라

어려려어 어려가하랑

낭으락은 구릿대

잎으락은 청대잎에

구실으름 쉼으름 을게 해줄

노력호는 일입니다

어려가하랑

(좌기득, 女, 85歲)

5. 표고밭에서 나무쫓개며 부르는 노래

5-1 아람차신 서리남아

용목에도 몬 드는 서리남아

초기나 나라

초기 아니낭 덕덜이 나민

백성덜 담배목침바끼 못호리라

서리남에 덕덜이라

초기 나라 우리 나라 진상가게

적은 남에 덕덜이야

요구실이 뵈 구실고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초기 나라 초기 나민

우리 나라 진상간다

(좌기득, 女, 85歲)

5-2 서어리는 아름차신 서어리어

용목에도 몬 가신 낭

화목바피 몬 흥는다

요 화목은 뜯 쉼에도 몬 시끈다

(좌기득, 女, 85歲)

Ⅱ. 童 謠

1. 잠자리를 잡으며

1-1 아지랑 꺽꺽

아지랑 꺽꺽

왕노야 왕노야

앗아난 방석에 앓이라

(양천일, 男, 12歲)

1-2 왕벌 왕벌

왕벌 흘레

(좌기득, 女, 85歲)

1-3 응야 응이야

나건 암컷

느건 수컷

(김인배, 男, 18歲)

2. 뱀이 나타났을 때

2-1 도깨비 하르방 큰칼 쫓암져

도깨비 하르방 작은칼 쫓암져

(양천일, 男, 12歲)

濟州島部落誌(Ⅲ)

2-2 큰칼 차라 죽은칼 차라

뒷칩 하르방 널 죽이제 햄저

(좌기득, 女, 85歲)

3. 비가 올 때

3-1 비야 비야
맹꽁이밭디
비야 비야
맹꽁이밭디

오지 말라
물 졸람저
작작 오라
물 졸람저

(김인배, 男, 18歲)

3-2 비야 비야
장독밭디
평× 속에

오지 마라
물 들엄저
물 들엄저

(김공만妻)

3-3 비야 비야
장밭디서

오지 마라
물 졸람저

비야 비야
평×에

오지 마라
물 들엄저

(좌기득, 女, 85歲)

4. 꿩 노래

4-1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콩끄르에 콩 줏어 먹영 살고

팥끄르에 팥 줏어 먹영 산다.”

(김공만妻)

4-2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그럭저럭 살았소.
꾸어 먹은 장네가
만해여 노난
하늘 우의서
천둥을 해여가민
곶을 되가 질룬다.”

(좌기득, 女, 85歲)

5. 머리를 박박 깎은 애를 놀리며

5-1 중뎃래기 상뎃래기
태역बाट의 가락췌

(좌기득, 女, 85歲)

5-2 중대가리 호박대가리
얼마 주고 까짖나

(김인배, 男, 18歲)

6. 까마귀노래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 갔다 오란디?”
“뒤침 할망침이 가오고라.”
“무사 가 오란디?”
“뒤침 할망침의 가난
어디 누랜 해여니?”
“천상 우의 누랜 해여라.”
“청상 우의 누난
밥은 몇 헨 주어니?”
“조팍 해연 주어라.”
“장은 몇 주어니?”
“개미장 주어라.”

(좌기득, 女, 85歲)

7. 등에(주열)와 매미를 잡으며

주열재열 노력오라
뗏을 먹쟁 노력울티
개똥범벅 허여 주마
주열재열 노력오라
췌똥범벅 허여 주마
췌똥범벅 먹당 냉겨 두민
내가 노력가느냐
내가 이 음식이 그거우덴
문저 내려온 건디
뗏을 먹을 게 있느냐
췌똥범벅 허여 주마

(좌기득, 女, 85歲)

8. 기 러 기

지러기야 지러기야
ㄱ찌 글라 ㄱ찌 글라
앞의 가민 총 잡은 놈 대여든다
ㄱ찌 글라 ㄱ찌 글라
지러기야 지러기야
높이 뜬 하늘 우의
동동 높은 하늘 우의
지러기야 지러기야
ㄱ찌 글라 ㄱ찌 글라
앞의 가민 총 받은 놈 잊저

(좌기득, 女, 85歲)

9. 우 렉 꿈

“불락 조케 나 말 들어 바.”
“어떻 읍디가?”
“간밤의 꿈사리가 궂어고.”

“어떻겐마씨?”

“백발술도 물어 베고,
눈 한 닢도 들어 베고,
돔배 우의도 올라 베고,
칼밥도 먹어 베고,
백물래도 허터 베고,
하늘 우의 뱃도 맞아 베고,
숫불도 채와 베고,
높은 상기 올라 절도 마타 베고,
꿈사리가 굿어고.”

“삼춘 오늘 땡심 흡서
오늘 죽으쿠다.”

(좌기득, 女, 85歲)

10. 달 팽 이

창문 올라
지계문 올라

곤애기 보게
곤애기 보게

(좌기득, 女, 85歲)

11. 개 구 리

“난 발 뺀라전 먼 길헌 문 허키여.”

“헛전 물 탕 글라.”

“물 타젠 허난 가달 벌려전 못 타키여.”

“헛전 요거 정 질라.”

“진 등맹이 튀어낭 못 지키여.”

“그것도 저것도 못해영

멧을 해영 우리영 호디 땡길티?”

(좌기득, 女, 85歲)

12. ‘도롱이’(자그만 벌레)를 보리 까끄라기로 낚으며

도롱이야 도롱이야 나오라

濟州島部落誌(Ⅲ)

큰칼 쏘앙 휘치게
죽은칼 쏘앙 휘치게
도롱이야 도롱이야 나오라

(좌기득, 女, 85歲)

13. 쇠비름 뿌리를 두들기며

동드레 불싸라
서러레 불싸라

(좌기득, 女, 85歲)

14. 실거리나무잎을 따서 손에 넣고 흔들면서

챙빔차라 얼레기차라
챙빔차라 얼레기차라

(좌기득, 女, 85歲)

Ⅲ. 語 戲 謠

※ 다음은 좌기득(女, 85歲) 할머니의 口演을 채록한 것임.

1. 생개 먹으민 생글생글
 맹개 먹으민 맹글맹글
 고사리 먹으민 가릿가릿
2. “오라 오라 낭흔레 가게.”
 “배 아팠 문 가키여.”
 “무슨 배고?”
 “콩죽 먹은 자라배여.”
 “자라배 무슨 자라배?”
 “콩죽 먹은 자라배여.”
 “하르비 콩죽으로 살았느냐?”
 “에미 젓드로 살고라.”

3. “저 산 저의 고박고박하는 것 멋고?”

“건 미쁘쟁이여.”

“미쁘쟁이인 된다.”

“희민 하르방이여.”

“하르방은 늙다.”

“늙으민 등 오그라진다.”

“등 오그라지민 췌질메여.”

“췌질멘 고망난다.”

“고망난 건 시리여.”

“시린 겹나.”

“겹으민 가마귀여.”

“가마귀 낯든다.”

“낯드민 심방이여.”

“심방은 춤춘다.”

“춤추민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이 멋고?”

“철쟁이 불미쟁이여.”

4. “수드리야 상뒤보레 가게.”

“난 창통이 제왕 몬 가키여.”

“떡보달아 상뒤보레 가게.”

“난 몸뻡이 제왕 몬 가키여.”

“등게보달아 상뒤보레 가게.”

“난 불 등기영 몬가키여.”

“곰생이야 상뒤보레 가게.”

“난 코 툴다전 몬 가키여.”

“문댁이야 상뒤보레 가게.”

“난 문더꺼전 몬 가키여.”

Ⅳ. 자 장 가

1. 원이자랑

원이자랑

濟州島部落誌 (Ⅲ)

은대중아
어서 자라
은을 주영
금을 주영
자랑 자랑

금대중아
어서 자라
너를 사며
너를 사나
왕이자랑

(박영권, 女, 58歲)

2. 왕이자랑
자랑자랑
은재 동아
금은옥색
우리 나라
부모에랑
일가방상
동기간에
왕이자랑
이 애기틀
호저 벌영
대흑마당에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늦재 동아
춘색동아
충신동아
효자동아
화목동아
우애 동아
왕이자랑
호저 키왕
요 아덜아
세와 불결

(엄방덥방 술 먹으멍 호염시라. 애긴 혼 술 두 술 식제 닭아도 요
아무집 보라 요 철록 키왕 허여가난 아이구 야야 난 매날매날
그 집만 보아진다)

왕이자랑
서룬 애기
왕이자랑
동네에랑
놈이 울러러
설운 애기
왕이자랑

왕이자랑
호저 크라
왕이자랑
거짓동아
브레게
호저 크라
왕이자랑

(야야 이 애기 왕 좃 맥이라)

(박순이, 女, 63歲)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3. 왕이자랑
어서 자라
일뤼 잔치
사흘 상뤼
왕이자랑

왕이자랑
어서 자라
하일 년아
모들 년아
왕이자랑

(좌기득, 女, 85歲)

信 仰

目

次

- I. 概 觀
- II. 公 認 宗 教
- III. 部落信仰과 家內信仰
- IV. 堂 儀 禮

I. 概 觀

龍水里는 242家口에 1,172名の 人口가 살고 있는 海岸部落이다. 里民의 主生業은 農業이지만, 公簿上의 漁村契員數가 漁夫 14名・海女 69名, 計 83名이나 있어 漁業의 收入도 輕視할 수' 없는 마을이다. 하나의 行政單位 마을로 되어 있던 龍水里 1・2區가 1958年에 龍水와 龍塘, 二個里로 分里되면서 第1種 共同漁場의 境界 紛糾가 極甚하여 兩里民間에 反目이 持續되었던 事實만 보아도 里民生活에 미치는 漁業의 位置를 理解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社會背景에서 里民의 信仰形態를 推論한다면, 특히 島內 他里의 一般의 事例에 비추어 볼 때, 農業과 漁業에 關聯된 傳統的 民俗信仰行事가 濃厚히 傳承되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實相은 이와 달라서 民俗信仰形態는 大部分 消滅되어 있고, 대신 公認宗教가 그 자리를 占有하고 있는 實情이다. 조금 具體的으로 말하면 約 70年前에 예수교

가 들어와 예루살렘교와分離되어 2個의 敎會가 이루어졌고, 約 20年前에 彌勒道(國際道德協會)가, 또 18年前에 天主教가 들어와, 자그마한 마을에 4個의 宗教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한편 傳統的 民俗信仰形態라 할 수 있는 客神祭, 醕祭 등 男性 中心의 部落祭는 約 50年前에 이미 消滅되었고, 女性 中心의 巫俗의 堂儀禮도 이미 4·50年前에 衰退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은 漁夫들의 豐漁儀禮行事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民俗信仰形態가 消滅되고 公認宗教로 代置되게 된 理由가 무엇인지, 자그마한 마을에 4個나 되는 公認宗教가 들어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理由는 무엇이며, 많은 公認宗教의 併存이 里民生活의 紐帶에 어떤 影響을 주고 있는지 등 많은 問題點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問題點은 이번의 調査 結果에서 얻어진 것이요, 이번 調査는 단지 그 實態만을 把握하려 한 것이기에, 以下 그 主要 現況을 記述하기로 한다.

Ⅱ. 公 認 宗 教

現在 이 마을에 들어와 있는 公認宗教는 예수교, 예루살렘교, 彌勒道(國際道德協會), 天主教로서 각각 마을 안에 敎堂을 갖고 있다. 그 來歷 및 現況은 다음과 같다.

A) 예 수 교

- ① 名稱: 대한 예수교 장로회 용수교회.
- ② 沿革: 이 마을에 맨 처음 들어온 宗教로서 70年前에 세워졌는데, 3年前에 예루살렘교가 分離되어 따로 세워졌다.
- ③ 信徒: 男子가 30여명, 女子가 70여명이며 어린이도 많다.
- ④ 敎會現況: 700여평의 대지에 건평은 40여평이며 10평의 '관사'가 있다.
- ⑤ 代表者: 翰京面 造水里가 고향인 김한익氏(男, 40歲).

B) 예루살렘교

- ① 名稱: 용수 예루살렘교회.
- ② 沿革: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3年前에 分離하여 세워졌다.
- ③ 信徒: 男子가 10여명, 女子가 20여명이며 주로 年老層이 많다.

濟州島部落誌(Ⅲ)

④ 本部：全羅南道 全州에 있는 韓國基督教協會이다. 濟州島內에는 西歸, 南元面 泰興, 龍水 3곳이 있다.

⑤ 禮拜：南元面 泰興里 예루살렘교회의 윤재도(男, 39歲) 목사가 한달에 2번 찾아와 說敎하고 日·水曜日에는 새벽기도를 한다.

⑥ 敎會現況：대지가 200여평이다.

⑦ 代表者：金桂香(男, 74歲).

C) 미 룽 도

① 名稱：國際道德協會인데 里民은 주로 미룡도라고 부른다.

② 沿革：20여년전에 들어왔다.

③ 信徒：男子가 10여명, 여자가 20여명이며 中年層이 많다.

④ 本部：서울 冠岳區에 있는 國際道德協會.

⑤ 禮拜：每日 아침 7時와 저녁 8時에 行하고 每月 1日·15日에는 하루 종일 계속한다.

⑥ 禁忌：淸口라 하여 고기, 술, 담배, 파, 마늘의 食飮을 禁하고 있다.

⑦ 階層：주재 점전사(점을 치는 사람), 단주(敎務를 運營하는 사람), 도친(一般 信徒)의 階層이 있다고 한다.

⑧ 運營經費：공덕드린다고 하여 信徒들이 祈禱를 할 때 시주한 金品으로 마련한다.

⑨ 敎理：이 世界의 歷史를 3期로 나누어 第一期는 영등고불부처가 지배하는 세계, 第二期는 석가무니부처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第三期는 미룡부처가 지배하는 세계라 한다. 즉 석가의 시대가 지나면 미룡의 시대가 온다는 신앙인데, 오늘날은 미룡의 시대가 到來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達磨道師의 像을 모시고 있고, 이에 따라 禮拜法도 特異하다. 즉, 第一期는 蓮잎이 成長하는 것에 해당하는 時期이므로 蓮잎 모양으로 舉手拜禮를 했고, 第二期인 釋迦의 時期는 蓮꽃이 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꽃모양으로 合掌拜禮를 했지만, 미룡의 時代는 열매를 맺는 時期이므로 열매 모양으로 주먹을 쥐고 拜禮를 한다는 것이다.

⑩ 단주：李瓚日(男, 52歲).

D) 天主敎

① 名稱：新昌 天主敎會 龍水分所.

- ② 沿革 : 18年前에 들어왔다.
- ③ 信徒 : 男子가 40여명, 女子가 80여명이다.
- ④ 敎會現況 : 대지가 250여평이며 전평이 70여평이다.
- ⑤ 禮拜 : 土曜日 午後에만 드린다.
- ⑥ 代表者 : 은단일 (男, 43歲).
- ⑦ 會長 : 홍요섭 (男, 50歲).

Ⅲ. 部落信仰 및 家庭信仰

部落祭로서 主된 것으로 客神祭, 醕祭 등 男性 中心의 儒式 祭儀가 있었고, 家庭의 新年祭로서 '산제'가 있었다. 이들 祭儀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 되어 村老의 口傳으로만 再構될 수 있었으며, 祝文·笏記 등 具體的인 事項은 조사할 수 없었다.

또한 節婦岩의 傳說的 主人公 高氏에 대한 墓祭는 現在도 行해지고 있는데, 이 祭도 一種의 部落祭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들 祭儀에 대한 대강의 모습을 記述하기로 한다.

A) 客神祭 (天祭)

- ① 祭名 : 客神祭 또는 天祭라 한다.
- ② 祭神 : 紙榜을 具體的으로 어떻게 써 붙였는지 記憶하는 이가 없어 神名은 모른다.
- ③ 目的 : 마을에 傳染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里民들이 健康한 一年의 生活을 누리도록 함이 그 目的이라 한다. 따라서 客神은 傳染病神임을 알게 한다.
- ④ 祭日 : 每年 陰 正月의 初丁日이나 亥日의 子時에 行했다.
- ⑤ 祭場 : 마을의 서쪽 海邊, '화상물'이라는 곳에 祭壇이 있고, 그 곁 바닷가에 祭廳이 있었다. 이 祭廳은 祭官들이 合宿 齋戒하던 建物인데, 지금은 建物이 헐리고 담장벽만 남아 있다. 그 곁에 「女史 洪丑生紀念石」이라 새겨진 自然石으로 된 碑石이 있는데, 이 碑는 이 마을의 洪女史가 이 祭廳을 改築하였으므로 그 功을 기리어 里民이 세운 것이다. 세운 날 짜는「乙亥 八月 十日」이라 새겨져 있다.
- ⑥ 管理 : 每年 年末 때 里長이 鄉會를 召集하여 祭官을 選出하고 祭儀

舉行 準備를 했다. 鄉會 召集의 方式은 마을의 使換인 傭人이 마을 近處의 언덕 몇 군데에 올라서 큰 소리로 會議 召集 內容을 외쳐서 里民에게 알렸고, 各 家戶에선 그 소리를 들어서 家長이 모였다 한다. 祭費는 各家戶에서 收歛하는 일이 없이, 里所有인 소나무밭의 收入으로 充當했다 한다. 즉 그 소나무밭의 管理權을 마을 사람에게 주고 거기서 收入되는 돈으로 祭費에 充當했다는 것이다. 이 祭를 行하던 때는 龍水里와 龍塘里가 分離되지 않아 龍水一區·二區로 되어 있던 때이므로 龍水里와 龍塘里가 合同으로 管理하고 行祭하던 셈이 된다.

⑦ 祭官: 3獻官과 小祭官을 합쳐 모두 12祭官이었다고 하는데, 그 小祭官의 名稱은 모두 記憶하고 있지 않다. 初獻官·亞獻官·終獻官은 有志男子로 選出했는데 一區(龍水里) 二區(龍塘里)에 골고루 配定하는 方式을 取했고, 小祭官도 兩區에 均等히 配定하는 方式으로 했지만, 特히 小祭官은 그 해에 結婚한 青年으로 삼았다 한다. 이는 成年이 되었다는 뜻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라 하며, 그 青年들은 新參入禮라 해서 合宿 齋戒하는 期間에 팔죽을 1허벅(飲料水를 길어 나르는 항아리) 쭉어 祭廳에 가져 오거나 탁배기(濁酒)를 1허벅 가져다 바쳤다. 이 팔죽 또는 탁주는 合宿하고 있는 祭官들의 食事로 充當됐다 한다.

⑧ 祭物: 稻·粱·黍·稷의 메 (이를 다 구할 수 없으므로 쌀·좁쌀의 메 各 2器로 代用했다), 돼지犧牲 1마리, 미나리·고사리·채소 各 1접시 海魚 1마리, 실과(당유지) 1접시, 그리고 幣帛으로서 무명 1필과 白紙 1권 등이 쓰였다. 메 이외의 다른 祭物은 다 날것으로 올렸다.

⑨ 齋戒·行祭: 祭日 3日前에 祭官들은 祭壇 곁에 있는 祭廳에 모여 每日 沐浴 齋戒하고 新參入禮로 가져온 팔죽을 먹으며 謹身했다.

⑩ 行祭: 祭日 前日の 戌時가 되면 祭官들은 다시 沐浴을 하고 笏記를 부르며 行祭 豫行練習을 한 뒤, 陳設을 하고 祭日의 子時가 되면 正式으로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祭를 舉行했다. 笏記와 祝文은 찾아 볼 수 없으나 笏記는 鄉校의 釋奠 때의 것과 大同小異한 것으로 생각된다.

⑪ 飲福: 祭가 끝나면 祭物은 祭官과 里長·有志 등 그 자리에 參集한 사람들이 모두 飲福했으며 里內 各 家戶에 나누는 일은 없었다.

⑫ 本鄉祭: 이 客神祭를 지낼 때, 같은 시간에 小祭官 3명을 本鄉堂(골새왓 丑日本鄉)에 보내어 本鄉堂神에게도 祭를 지냈다. 이 本鄉堂神祭에는 닭 1마리를 犧牲으로 하고 그외 客神祭에 올리는 祭物을 조금씩 올려서 笏記 부름이 없이 單酌으로 祭를 지냈다 한다.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⑬ 廢祭：客神祭는 約 50年前에 없어졌다. 理由는 예수교가 마을에 들어오고 人智가 開明되어 迷信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 祭를 지내지 않아도 마을에 별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들 있다.

(傳言者：玄柄湖翁, 76歲)

B) 醮 祭

① 祭名：‘포제’라고 일컫고 있다.

② 祭神：紙榜을 무엇이라 써 붙였는지 記憶하지 못하여 神名은 잊어버리고 있다.

③ 目的：곡식의 모든 病虫을 없애고 豐年이 들도록 祈願하는 祭라 한다. 이 目的으로 보아 神은 農神의 性格임을 알 수 있다.

④ 祭日：陰 7月の 初丁日이나 亥日의 子時.

⑤ 祭場：龍水里와 龍塘里의 中間地點에 있는 ‘포젯동산’에서 行했다.

⑥ 管理：客神祭와 꼭 같이 里有財産인 술밭의 收入으로 祭費를 마련했고, 里長이 鄉會를 召集하여 祭官을 選出하고 祭官으로 하여금 行祭까지 進行시켰다.

⑦ 祭官：客神祭와 同一하게 12祭官을 選出했고, 그 祭官의 選出方式도 客神祭 때와 같다.

⑧ 祭物：客神祭 때와 같다.

⑨ 齋戒：客神祭 때와 같이 祭日 3日前에 祭官들이 合宿 齋戒했는데, 이 때에는 ‘포제동산’ 곁에 있는 ‘광정이물’(廣井)이란 우물에 금줄을 쳐서 一般人의 出入을 禁하고, 이 물로 祭物을 料理하기도 하고 祭官들이 沐浴하기도 했다.

⑩ 行祭：客神祭 지내는 方式과 꼭 같이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祭를 舉行했다.

⑪ 飲福：祭官들과 行祭時 參集한 有志들이 飲福하였으며 里內 各 家戶에 나누는 일은 없었다.

⑫ 本鄉祭：客神祭 때와 같이 小祭官 3人을 本鄉堂에 보내어 醮祭 行祭 時間과 同時에 祭를 지냈다.

⑬ 廢祭：約 50年前 客神祭와 同時에 廢止되었다.

(傳言者：玄柄湖翁)

C) 산제 (山祭)

산제는 各 家戶마다 一年間의 집안의 平安과 豐農·豐漁 등을 祝願하던

新年祭인데, 約 30年前에 없어졌다. 그 祭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① 對象: 土地之神位라는 紙榜을 써 붙여서 했다.
- ② 祭日: 每年 陰 正月에 各 家戶마다 擇日하여 정했다.
- ③ 祭場: 各 家戶의 울타리 안.
- ④ 祭物: 닭 1마리를 犧牲으로 하고 쌀메, 좁쌀메, 海魚, 채소류, 과일류 등을 올리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 ⑤ 行祭: 祭日날 子時에 陳設을 하고 儒敎式 祭法으로 祝文을 읽어 舉行했다.

D) 節婦 高氏할머니 墓祭

① 由來: 옛날 龍水里에 高氏處女와 강씨총각(姜氏라 하는 이도 있고 康氏라 하는 이도 있다)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 다 早失父母하고 가난했었다. 이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한 지 얼마 없어서 남편이 차귀섬(遮歸島·竹島)에 대나무를 하러 배를 타고 떠났다. 때마침 풍랑이 일어 남편은 돌아오지를 않았다. 부인 高氏는 14日 동안 바닷가를 돌며 남편을 찾았으나 남편은 돌아오지를 않았다. 高氏는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그 뒤를 따를 것을 결심하여 지금의 節婦岩에 있는 나무에 목매어 죽었다. 그러자, 그 날 밤 남편의 屍體가 바로 高氏가 목매어 죽은 바닷가에 떠 올라왔다. 그 후 '신재우'라는 大靜縣監에 의해 烈女碑가 세워졌고 墓祭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高柄五·朴用厚共編 '元大靜郡誌'에 의하면 愼裁祐縣監은 「高宗 辛巳五月 到任 癸未 四月 歸」라 되어 있으니, 高宗 辛巳는 1881年이므로, 이것이 事實이면 約 95年前 일이 된다.

② 祭日: 陰 3月 15日. 이 날짜로 祭日을 삼게 된 것은 濟州島內의 一般的인 例와 같이 淸明을 前後해서 날짜를 정한 것이 그리 된 것이라 한다.

③ 祭場: '당오름'에 있는 高氏墓所.

④ 祭儀管理: 처음에는 高山·龍水 兩里가 一年씩 交代로 祭物을 準備하고 祭儀舉行을 主管하여 왔는데, 祭費 捻出이 困難한 형편을 보고 龍水 婦女會 곧 海女들이 돈을 모아서 位土를 사 놓았다. 그 後로 이 位土를 龍水里長이 管理하고, 그 位土의 收入으로 祭費를 마련하여 祭를 지내게 되었는데, 墓祭 때에는 高山, 新昌, 龍水里民들이 參集한다.

⑥ 性格 : 이 墓祭는 그 子孫들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里民들이 合同으로 지내는 점을 보면 一種의 部落祭의 性格의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남편 姜氏의 靈魂보다 妻인 高氏의 靈魂을 위하는 祭임을 強調하는 것을 볼 때 處女의 怨魂을 위하는 것과 같은, 怨魂慰撫祭의 性格도 띠는 것이라 생각된다.

(傳言者 : 玄柄湖翁)

IV. 堂 儀 禮

龍水里와 龍塘里가 같은 마을로 되어 있을 때 마을의 守護神堂인 本鄉堂으로 '골새왓丑日本鄉堂'이 있었고, 또 龍水里 浦口 곁엔 '개당'이라는 漁業守護神堂이 있었다. 이 두 堂이 지금은 祝願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데, 過去의 祭儀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丑日本鄉堂

① 神名·系譜 : 골새왓丑日本鄉이라 한다. 이 神은 龍水·龍塘 兩里의 守護神으로, 그 系譜는 '거막'(涯月面 今岳里)으로부터 發源하고 '거머들'(翰京面 頭毛里)로부터 가지 갈라온 神이라 한다. 즉 '거막'(今岳) 두 신머들 丑日本鄉神의 큰딸이 '다믄들'(翰京面 楮旨里) 허릿당 일퇴한집이고, 둘째딸이 '조숫물'(翰京面 造水里) 삼대바지 丑日本鄉神, 셋째딸이 '두미'(頭毛里) 거머들 丑日本鄉神인데, 이 거머들 丑日本鄉으로 가지 갈라온 神이 '판포'(翰京面 板浦里) 손도물 丑日本鄉과 龍水里의 골새왓 丑日本鄉이다.

② 祭日 : 丑日에 다니는데, 마을 全體의 당굿은 없었고, 各家戶別로 丑日에 심방(巫覡)을 빌어 축원했다.

③ 祭物 : 메 3器, 海魚 1마리, 술 1병, 과일, 멥실(命絲) 소지(白紙) 3~4枚가 所要되었다. 메 3器는 本鄉메(本鄉神에게 올리는 메) 2器와 들림메(마마神 등 流行病神에게 올리는 메) 1器이다.

B) 개 당

① 神名 : 영덕물 개할마님이라 한다. 系譜나 來歷을 말하는 說話가 없다.

② 祭日 : 없다. 이 당은 漁夫들이 豐漁를 비는 堂이니, 漁夫들이 멀리 漁撈를 나갈 때 이 堂에 가서 정성을 드렸었다.

지금은 堂에 가서 정성 드리는 이가 없고, 每月 初1日과 15日, 漁船에 정성 드릴 때 이 神에게도 같이 祭物을 올린다. 즉, 每月 초하루와 보름에 漁夫들은 漁船의 이물 : 고물 · 기관방 등에, 메 · 海魚 · 과일 · 채소 · 술 등을 올려 告祀를 드리는데, 이 때에 개당神에게의 祭物도 배 위에 함께 陳設하여 告祀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다.

觀 光

目 次

- I. 序 論
- II. 觀光地開發의 必要性
- III. 觀 光 資 源
- IV. 現況과 開發策
- V. 結 論

I. 序 論

우리가 사는 이 濟州道를 世界的인 觀光地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研究와 努力이 必要하다. 이번 冬季放學期를 利用하여 翰京面 龍水里一帶의 觀光資源을 調査하며 이를 踏實히 知었다. 濟州道가 앞으로 올 80年代의 觀光客을 收容하기 위해서는 觀光루트를 多樣하게 開發하는 일이 急先務이다. 本道는 各 마을마다 特異한 資源이 分포되어 있지만 이들을 다른 觀光資源과 連關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調査를 通하여 確認하였다.

濟州道 一周道路를 따라서 갈 때, 翰林邑 狹才里的 狹才窟과 安德面 山

房山 사이에는 觀光資源의 開發이 不振하여 本道를 찾아오는 觀光客들은 狹才와 山房山 사이를 無意味하게 지나쳐 버리게 된다. 本報告書는 이 두 곳 사이에 있는 龍水里 一帶를 對象으로 삼아 觀光資源을 調査·分析·檢討해 보고자 하는 것이 主目的이다. 그러나 調査한 結果 龍水里와 周邊部落의 開發은 여러 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었다.

Ⅱ. 觀光地開發의 必要性

觀光活動을 通해 個人에게 還元되는 効用은 人格形成에의 寄與, 生活에의 充實, 社會生活의 圓滑化, 心身の 休養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처럼 觀光은 人間에게 精神的·肉體的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가진 觀光客들을 誘致하는데 있어서 龍水里 一帶는 本道 觀光루트상 매우 重要한 地點으로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龍水里地域 觀光開發은 地域經濟의 振興뿐만 아니라, 地域生活空間의 質的 向上이라는 綜合的인 觀點에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地域生活空間에는 地域住民의 生活에 관계되는 生産環境·居住環境·敎育環境·레크레이션環境 등 地域社會를 構成하는 全 生活體系를 包含한 空間을 意味하는데, 위 環境開發 가운데 이번 調査對象으로 삼은 部門은 레크레이션環境開發, 즉 觀光開發인 것이다.

‘10個年 濟州道綜合觀光開發計劃’에 보면 濟州市地區·中文地區·西歸浦地區를 中心으로 한 開發案이 作成되었는데, 대개 이들은 흩어져 있으므로 觀光客들이 주로 1박2일, 아니면 2박3일 정도의 短期觀光形態를 취하게 된다. 이를 좀더 滞在型 觀光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多邊的인 觀光루트 造成이 필요한데, 이렇게 觀光루트가 새롭게 造成되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 翰京面 龍水里 一帶인 것이다.

地域開發에 있어 觀光開發의 效果는

- ① 觀光旅行者의 流入에 따라 消費支出에 의한 地域住民의 所得向上
- ② 地域住民의 觀光關聯産業에 就業할 수 있는 機會의 增加
- ③ 他地方과의 交流容易에 따른 他産業에의 就勞機會 增加
- ④ 地方民藝品·特產品 등의 地域産業이나 傳統藝術의 振興
- ⑤ 地域格差의 縮小에 대한 貢獻
- ⑥ 觀光旅行者의 過度集中 緩和

등을 들 수가 있다. 龍水里一帶 觀光開發效果의 重點的인 要素는 ⑤ ⑥이다. ⑤ ⑥을 볼 때 本道는 濟州市·中文·西歸浦의 3地區에 觀光客이 集中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 세곳만을 開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地域格差가 있어 龍水里一帶의 觀光環境을 構成하여 새로운 觀光루트를 造成해야 하겠다. 이렇게 觀光地로서 開發만 된다면 위의 ① ② ③ ④는 自然的으로 誘導될 것이다.

다음 項에서 밝히겠지만 龍水里一帶의 觀光資源은 開發할 價値가 있는 것인데도 지금까지 觀光地로 脚光을 받지 못했던 것은 關係當국의 施策과 地方自治團體의 도움이 부족했던 때문인 것 같고, 住民들도 신경은 썼지만 資本不足이라는 큰 問題 때문에 활발하게 開發이 안 되었던 것 같다.

Ⅲ. 觀 光 資 源

觀光資源은 본래 그 자체가 觀光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開發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觀光客이 그와 같은 觀光資源의 存在조차 모를 것이다. 觀光地開發은 資源이 없는 地域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自然資源이나 人文資源 등이 觀光價値는 있으나 一般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觀光地開發에 있어 우선은 그 地域의 觀光資源을 調査하는 것이 重要한 일이라 본다.

1. 海 岸 資 源

海岸地域에 있어서의 觀光은 海岸景觀의 鑑賞과 海岸이나 바다를 活動舞臺로 삼는 여러 가지 行動을 수반한다. 海岸景觀의 鑑賞은 奇岩巨石이나 斷崖絕壁이 있는 海岸·海中·海底의 景觀 등의 自然景觀은 물론, 燈臺·漁港·漁村 등의 人文資源도 그 對象이 된다. 그리고 海岸이나 바다에 있어 觀光的 活動은 海水浴·낚시·요트 등이 이에 添加된다.

龍水里地域 觀光開發에 있어 重要하고 價値있는 資源이 바로 이 海岸資源이다. 이곳은 海岸景觀의 鑑賞과 觀光的인 活動을 전부 갖춘 곳인데, 重要 鑑賞處는 ‘遮歸섬’·‘눈섬’·‘두럭바위’ 근처의 奇岩絕壁이나 地層現象이고 活動處는 ‘遮歸섬’·‘눈섬’ 등이 좋은 낚시터로 되어 있다. 龍水里一帶의 海岸資源은 節婦岩이 있는 곳에서부터 水月峰 앞까지인데 이곳을 살펴 보면 ‘눈섬’(一名 대섬, 竹島)과 ‘遮歸섬’, ‘節婦岩’ 부근, ‘堂山峰’(一名 高山峰) 밑의 ‘두럭바위’, ‘水月峰’ 周邊에 분포되어 있는 특

異한 地層 등을 들 수 있다.

‘눈섬’(竹島)은 李元鎭의 ‘耽羅志’에 보면 “縣 西 26里에 있고 四面이 모두 石壁이며, 東南쪽에 船舶 停泊處가 있어 倭寇가 여기로 자주 侵入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이 섬은 대나무가 많아 대섬이라고도 불리우지만, 지금은 대나무가 전혀 없으며 또 그 모양이 누워 있다고 해서 ‘누운섬’의 준말로 ‘눈섬’이라고 흔히 불리워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은 낚시터로서 開發할 價値가 있다. 그 앞에 있는 ‘遮歸섬’은 이 地方에서뿐만 아니라 全國적으로 有名한 낚시터로 紹介가 되어 있는 곳으로 부연 설명은 피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節婦岩’ 부근의 海岸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地形的으로 部落과 함께 連結되어 있고 다른 海岸과는 달리 比較的 樹林이 있으며, 傳說的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좋은 海岸資源이 될 것이다. 또 ‘堂山峰’ 밑 海岸에 있는 가파른 絕壁은 俗稱 ‘두력바위’라 불리는데, 이곳은 干潮일 때는 평평한 바위가 넓게 펼쳐지는 곳이어서 이곳도 낚시터로서의 開發이 유망하리라 본다.

또 하나는 ‘水月峰’ 밑 주위에 있는 地層現象인데 이러한 現象은 西歸浦에도 있지만 이곳도 하나의 海岸觀光資源으로 重要的 部分을 차지할 수 있다 하겠다.

2. 山 岳 資 源

一般的으로 山岳資源이라면 森林·高山植物·湖沼·溫泉·못 등의 資源들이 분포되어 있는 廣義의 뜻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水月峰’과 ‘堂山峰’은 眺望價値가 있는 資源이다.

‘堂山峰’은 그다지 開發이 안되었지만, ‘水月峰’은 進入路가 比較的 잘 整備되어 있고, 頂上에서 내려다보는 展望이 참으로 훌륭하다. 바다쪽에는 ‘눈섬’과 ‘遮歸섬’이 보이고 반대편으로 Aspite型인 漢拏山이 더욱 웅장한 멋을 풍긴다. 이 주위에 있는 ‘高山里’가 盆地地形態여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가 하면, 이곳에서 보는 落照는 어느곳에서 보는 것보다 훌륭하다. 옛말에 「白砂青松」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곳은 비록 바다쪽에는 白砂가 없다 할지라도 그 景觀은 絶景이다. 이 두 峰이 眺望性이 있는 觀光資源이라면, 더 좋은 風致林地域을 만들기 위해서 造林環境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民 俗 資 源

대표적 民俗資源으로서 節婦岩과 韓國民俗音樂博物館 (Korean Folk Music Museum)을 들 수 있다. 康士喆의 妻 高氏의 절개를 傳하는 節婦岩은 海岸에 위치해 있고 樹林도 우거졌는가 하면, 高氏의 傳說的인 實話가 이 節婦岩을 한층 價値 있게 해준다. 高氏의 墓는 堂山峰 밑 一周道路 쪽에 있는데, 그 墓가 節婦岩 부근에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民俗音樂博物館 (館長 羅運榮, 副館長 高山鶴)은 作曲家 羅運榮博士가 建立한 것으로 國內 特有의 存在다. 內部에는 장구·북·거문고·가야금·수궁후(우리나라에는 둘 밖에 없음) 등 稀貴한 옛날 악기가 몇점 展示되어 있고 음악서적이 정리되어 있다. 入場料는 없고 늘 公開되고 있으며, 이 건물은 博物館과 敎會로 동시에 活用되고 있다. 年 500~600名의 觀光旅行者가 관람한다고 한다. 그 주위에는 16정보의 '용수못'(貯水池)이 널따랗게 펼쳐 있어 稀貴鳥들이 많이 찾아들어 話題를 모은다. 禁獵區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은 주위 환경이 아늑하여 앞으로 休養地로서 한 몫을 차지할 만한 곳이다.

金尙憲이 지은 '南槎錄'에 보면 遮歸防護所와 遮歸堂에 대한 記錄이 보이며, 또한 李元鎮이 지은 '耽羅志'에는 遮歸城에 대해 記錄되어 있다. '南槎錄'에 보면 "遮歸防護所는 縣 西 26里되는 遮歸岳(一名 堂山)아래 遮歸浦 東北에 있으니 石城둘레는 1,190餘尺, 높이는 18尺이다. 遮歸堂은 遮歸岳麓에 있다. 風俗에 蛇鬼를 섬긴다. 堂의 屋壁과 樑礎에는 群蛇들이 서리서리 얹혀 있다. 제사할 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본다"고 하였다. 耽羅志에 보면 "遮歸城은 縣 西 25里에 있고 石壁으로 주위 2,466尺, 높이 22尺이다. 중간에 폐지하였다가 新築하였다. 城廓에는 城將이 각 1人 있다고 전해지지만 아쉽게도 遮歸防護所와 遮歸城은 그모습이 남아 있지 않고 遮歸堂은 터만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民俗資源이 남아 있지 아니한 것이 매우 한스러운 일이다.

IV. 現況과 開發策

앞서 밝힌 바와 같이 龍水里 一帶는 觀光루트상 重要한 地點이기 때문에 이곳을 開發해야 할 必要가 있다는 것은 再言이 不要하다. 觀光地開發이란 觀光資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이곳의 觀光資源 現況을

보면 먼저 海岸資源인 ‘遮歸섬’·‘눈섬’ 등을 들 수 있다. 이 섬들을 낚시터로 利用하는 데에는 天惠적인 環境을 具備하고 있지만 觀光交通路의 未備와 船舶料금이 過多하므로 觀光客의 誘致에 問題點이 있다. 다음으로 節婦岩 주위의 造景은 주민이 無關心하여 매우 不潔하고 汚物로 인해 不快한 印象을 주었다. 節婦岩을 거쳐 海岸道路를 따라가면 堂山峰 밑 바닷가에 奇岩絶壁인 ‘두럭바위’가 나타난다. 海岸道路는 여기서 꺾이어 堂山峰 중턱으로 道路가 나있어, 앞으로 龍水里 一帶가 觀光地로서 脚光을 받으려면 이 海岸道路가 빨리 新設되어야 할 것이다. 또 水月峰 주위의 地層도 觀光資源으로서 面貌를 갖추고 있으나 지금은 未整備된 상태다. 水月峰 山頂에는 亭閣 하나가 세워져 이곳까지의 進入路가 비교적 잘된 狀態라고 할 수 있다.

民俗資源으로서의 節婦岩과 民俗音樂博物館은 그 주변이 未整理되어 있어, 이러한 現況에 놓인 觀光資源을 잘 다듬고 가꾸어야 龍水里 一帶를 觀光地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個項目의 觀光開發策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1. 觀 光 道 路

龍水里는 濟州市에서 西쪽으로 약 1시간반이면 버스로 도착되지만 이곳의 中心觀光資源은 海岸에 분포되어 있다. 一周道路에서 海岸線에 닿을 수 있게 道路는 開設되었지만 버스路線은 아니다. 節婦岩에 이르는 道路는 地域적인 特性을 살려서 觀光코오스化하고 觀光버스는 部落을 迂廻하여 通過하도록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節婦岩에서부터 ‘두럭바위’까지는 海岸道路가 비록 細路이긴 하지만 整備되어 있는 편이나, ‘두럭바위’에서 堂山峰 밑 해변마을까지는 海岸道路가 開發이 안 돼 있어 이 두 地域 사이를 連結하는 海岸道路의 新設이 重大한 課題라고 思料된다.

高山里的 한 開發委員의 說明에 依하면 몇년전부터 ‘두럭바위’와 堂山峰 밑 해변마을까지 海岸道路開設을 計劃했었지만, 그곳의 地形이 험난하고 干滿의 差와 資本不足이라는 問題 때문에 이를 수 없었다고 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海岸道路를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을 볼 때, 무척 힘든 일이지만 政府·地方自治團體·住民이 協力해서 이 道路를 完成한다면 앞으로 이 地域은 어느 地域 못지 않게 脚光을 받을 것이다.

2. 낚시터의 開發

낚시터는 ‘눈섬’·‘遮歸섬’, 그리고 ‘두럭바위’ 근처다. 여기서 ‘두럭바

위' 附近은 매우 험하고 干滿의 差 때문에 지금은 開發이 不可能하나, 앞으로 海岸道路가 開發되면 곧 利用될 수 있을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遮歸섬'은 有名한 낚시터로서 좋은 場所인 것은 확실하다. 魚族도 豊富하고 그곳에서 바라다보는 景致는 정말 壯觀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오지만 이곳 또한 往來하는 交通이 不便한 점이 첫째 問題다. 堂山峰 밑 해변마을에 와서 이곳 住民들과 船賃을 決定해서 '遮歸섬'으로 가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바가지 料金を 要求하는 예가 있어 이곳을 찾는 旅行者들에게 不快感을 주는 일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船賃案内板을 설치하여 旅行者에게 좀더 便易를 提供했으면 좋겠고, 遊覽船을 만들어 '눈섬'과 '遮歸섬'의 周邊景觀을 迂廻하면서 鑑賞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觀光地域이 되지 않을까 한다.

3. 節婦岩 부근의 造景問題

現 節婦岩의 주위환경은 未整備된 狀態에서 觀光地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고 있다. 節操를 지킨 高氏夫人의 祠堂을 지어, 이곳을 찾는 觀光客들이 參拜하는 하나의 倫理的인 觀光地로 開發시켜야 하겠다. 이와 같은 巡禮地域으로 改善되기 위해서는 더욱 造林과 造景事業에 힘을 써서 巡禮地로서 웅장한 멋을 갖추게 되면, 後代를 위한 教育的인 効果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入口쪽에 보면, 部落의 功德碑가 이곳에 立石되어 있어서 調和되지 않으므로, 더욱 古典的인 風致를 이루도록 하는 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앞으로 마을사람들이 이곳의 淨化運動에 적극 참여하여 널리 紹介할 만한 價値 있는 場所로 開發시켜야 하겠다고 본다.

4. 民俗音樂博物館의 周邊整備

韓國에서 唯一無二한 民俗音樂博物館이 이곳 龍水里에 設置되었음은 이 마을로서 커다란 榮光이며 資產이다. 이 博物館은 設立者 羅運榮教授의 勇斷과, 本里 出身 高山鶴氏(本 博物館 副館長)의 極盡스런 周旋과 뒷받침에 따라 이룩된 것이다.

그 주변에 16町步의 '용수못'(貯水池)을 背景으로 하는 이 博物館은 그 文化的 觀光的 價値가 珍重, 至大함에도 不拘하고 進入路 整備·水道施設·電氣架設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放置狀態에 놓였음은 참으로 아쉬운 감을 느끼게 한다. 모처럼 세워진 이 博物館이 所期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行政機關과 住民들은 그 附帶施設의 早速한 實現을 위하여 心血을
쏟아야 할 것이다.

5. 遮歸防護所와 遮歸城의 復元

옛날 이곳은 倭寇가 자주 침범했다는 記錄이 있거니와, 이곳 地方住民
들은 倭寇를 막기 위해 防護所나 城廓을 만들었었다. 異民族과의 抗爭地
또는 國防의 要塞地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므로, 防護所와 遮歸城을 考證
하여 復元하면 훌륭한 觀光資源으로 脚光을 받게 될 것은 明白한 事實이
다. 過去 이곳 先民들이 他民族의 侵入에 저항했던 史實을 再認識시키고
아울러 國防意識을 고취시키는 데도 큰 意義가 있을 것이다.

6. 堂山峰과 水月峰의 風致林造成

觀光客의 散策코스이며 眺望價値가 있는 이곳은 造林事業이 가장 急
先務라고 본다. 하나의 山岳資源으로서 大洋과 漢拏山이 一望之下에 들어
오는 重要한 地點이나, 樹林이 없어 다른 곳보다 脚光을 받지 못하는 실
정이고 보면 이곳을 造林, 울창한 森林을 이룩하고, 森林 속에서 眺望觀
光地가 될 때, 많은 觀光客이 往來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住民들이 植木
日이나 慶祝日 같은 때에 1人1植樹를 하여 푸른 山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는 政府의 지원보다 이곳 住民들이 自發的인 參與로 이루어져야 效果가
클 것이며 이를 위한 努力도 必要하리라 본다.

7. 宿泊施設과 娛樂施設의 計劃

‘龍水窟’(저수지)은 稀貴한 철새들의 棲息處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一周道路에서 약1km쯤 떨어져 있어서 環境이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 宿泊施設과 娛樂施設을 設備하여 觀光客이 滞在할 수 있도
록 개발시켜야 하겠다. 이곳에 宿泊施設이 開設되면 龍水里 一帶를 찾는
觀光客들은 이곳에서 여장을 풀고난 다음 海岸觀光地를 鑑賞한다든지 낚
시를 즐긴다든지, 水月峰이나 堂山峰에 散策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
며, 또한 레크레이션 施設이 걸들여 구비되면 이곳에서 1박2일 정도의 滯
在를 誘導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이상을 통해 龍水里 一帶가 濟州道 觀光루트상 重要な 곳이기 때문에 觀光地로서 開發의 必要性을 整理해 보았다. 海岸資源·山岳資源·民俗資源 등에서 살펴듯이 용수리는 特異한 資源을 지니고 있는 地域임에 틀림 없으며 더욱 그 開發價値를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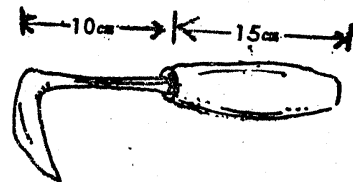
重點的인 開發問題로는 觀光道路·낙시터·節婦岩·韓國民俗音樂博物館·遮歸防護所와, 遮歸城의 復元·堂山峰과 水月峰의 風致林造成·‘용수 못’ 주위의 開發策 등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곳을 觀光地로 開發하기 위해서는 行政當局과 觀光關係者, 住民들 모두의 많은 研究와 計劃과 뒷 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民 具

目	次
1. 쏘 갱 이	7. 호 텡 이
2. 글 갱 이	8. 곱 배
3. 도 깨	9. 배 술 기
4. 덩 석	10. 굴 그 네
5. 펠 망 텡 이	11. 잠 데
6. 덩드렁마깨	

1. 쏘갱이 (→호미) <그림 1>

‘쏘갱이’는 ‘검질’(→기음)을 매거나, 흙을
긁어내는 데에 쓰이며 25~30cm 정도의 길이
이다. 흔히 무쇠와 소나무로 만들어 진다. 陸
地 호미에 비해 날幅이 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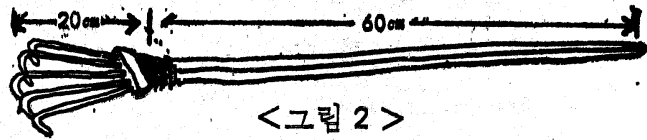


<그림 1>

2. 글갱이/갈궁이 (→갈퀴)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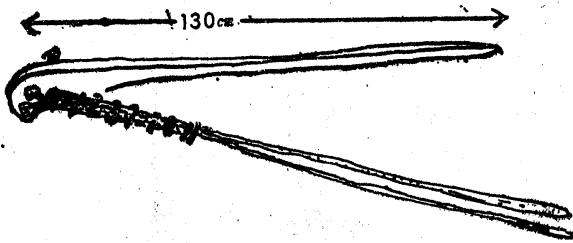
‘글갱이’는 솔잎 등의 나
엽이나 점불 따위를 그려
모을 때 사용되는 기구로

대(竹)·소나무 등을 가지고 글개와 손잡이를 만들고, 칩덩굴(葛繩)로 대
로 된 글개를 엮어 고정시킨다. 길이는 150cm 정도이며, 현재 글개는 鐵
絲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림 2>

3. 도깨 (→도리깨) <그림 3>



<그림 3>

‘도깨’는 콩이나 팥 따위의
이삭을 두드려 알갱이를 떠는
데 쓰인다. 가시나무 등으로
‘도깨어시/도깨지동’ (→도리
깨채)를 만들며, 칩덩굴로 ‘도
깨아덜/도깨아돌/도깨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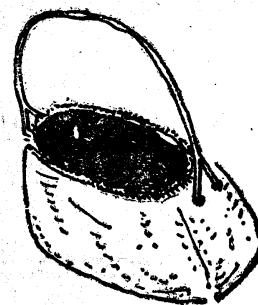
리깨열)을 만든다. ‘도깨질’을 할 때에는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행한
다.

4. 멍석 (→멍석)

‘멍석’은 곡식을 넣어 말릴 때에나 ‘도깨질’을 할 때, 또는 시골에서
집안의 큰일에 손님을 모시기 위하여 마당을 사용할 때에 깔아 놓는 직사
각형 모양의, 벼짚으로 엮은 깔개이다.

5. 멜망텅이/밀망텅이 (→망태기) <그림 4>

‘멜망텅이’는 파종할 때에 어깨에 매고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때로는 고구마·감자·곡물
등을 담아 나르는 데에도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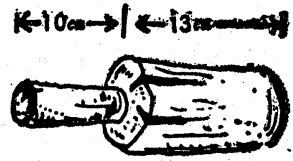


<그림 4>

6. 덩드렁마개 (→방망이)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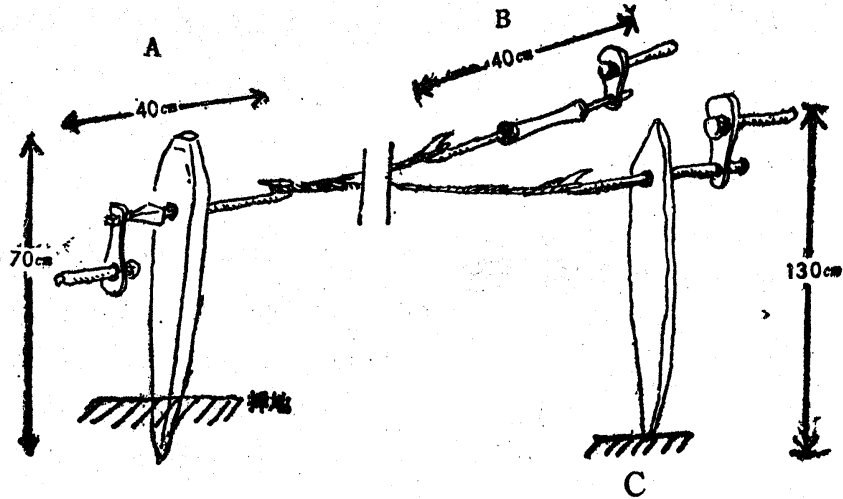
‘멍석’이나 ‘멜망텅이’를 결 때 ‘덩드렁’(: 땀땀

미끄럽다하며 둥글넓적한 돌) 위에다 충분히 물에 축인 짚을 놓고 '덩드렁마깨'로 두드리면 부드러워지게 되고 손쉽게 결 수 있다.



<그림 5>

7. 호랭이/호룽이 · 뒤치는거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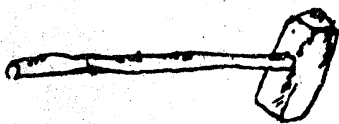


<그림 6>

제주에서는 초가의 지붕을 茅茨로 덮는데, 長茅인 '새'로는 지붕을 '일며'(: 덮어 짧) '각단' (短茅)으로는 '집줄' (→지붕줄)을 끈다. '호랭이' (B·C)와 '뒤치는거' (A)는 '집줄'을 꼬는 데 사용되는 기구로, '노가리' (朱木)나 소나무, 대나무통을 써서 만든다.

우선 두 사람이 외줄을 꼬는데, 한 사람은 앉아서 각단을 '호랭이' (B)의 '공쟁이' (호랭이의 끝 구부러진 부분)에 걸고 계속 이어주면은, 다른 한 사람은 '호랭이조록/조록' (→자루)를 잡고 뒤로 물러서며 꼬아 간다. 이렇게 외줄을 꼬고 난 뒤에 세사람이 <그림 6>에서와 같이 겹쳐 꼬아 가면 드디어 든든한 집줄이 된다.

8. 곰베 (→곰방메)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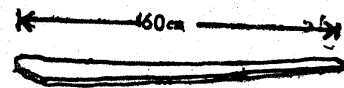


<그림 7>

'곰베'는 씨를 뿌리고 나서 흙을 덮을 때에나 흙덩어리를 잘게 부술 때에 사용되는 농기구로 소나무 등으로 된 머리에 가시나무 자루를 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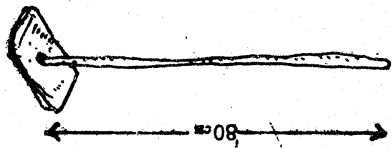
9. 배술기/배수기/남술기 <그림 8>

‘배술기’는 밥이나 죽을 할 때에 솥 밑에 밥이나 죽이 눌어 붙지 않게 짓는 일종의 밥자이며, 참나무나 삼나무로 만들어진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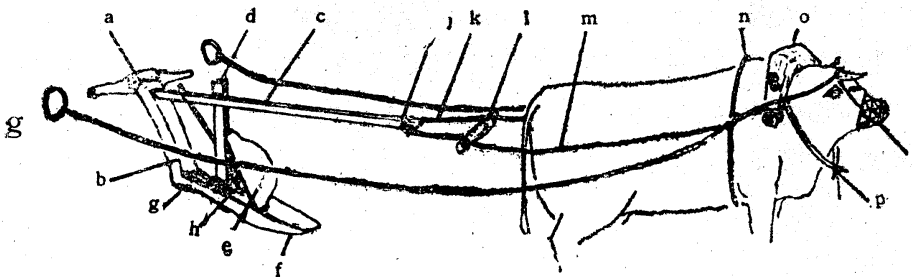
10. 굴그네/불그네/굴묵궁그네/굴묵당그네 (→고무래) <그림 9>



<그림 9>

‘ㄱ시락’ (→까끄라기)나 ‘물뚱’ 등의 찔감을 ‘굴묵’ (→온돌) 속에 밀어 넣을 때 쓰인다.

11. 잡데 (→쟁기) <그림 10>



<그림 10>

- a) 양주머리 : 쟁기의 손잡이로 흔히 소나무로 만들어진다.
- b) 무쿨/목훈/몽쿨 : 양주머리와 보습 사이의 ㄷ字 모양의 사면체.
- c) 성에 : 무쿨과 오리목(줄) 사이의 육면체로 오리목줄을 매게 된다.
- d) 설깃 : 성에와 무쿨을 유지시켜 주며 벼를 고정시킨다.
- e) 벼 : 보습이 흙을 일구어 올리면 양옆으로, 또는 한쪽으로 제쳐 놓는다.
- f) 보습/보습 : 바느질할 때의 굴무처럼 무쿨 끝에 끼워져 있으며, 사용 안할 때에는 벼와 함께 떼어서 따로 보관해 둔다.
- g) 벼칼 : 설깃에 달려서, 벼바도랭이를 설깃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h) 벼바도랭이 : ㄱ字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벼를 설깃과 보습 사이에서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濟州島部落誌(Ⅲ)

- i) 망울/망울 : 밭을 갈 때 쇠주둥이에 씌우는 網으로, 망울을 안 씌울 때는 성에에 매어 둔다.
- j) 돌벙이뿔 : 오리목(줄)을 성에에 댈 수 있게 하는, 성에 끝부분을 뚫어 지른 나무.
- k) 오리목(줄) : 잠데(→쟁기)와 소를 연결하는 줄로 돌벙이뿔에서 벌레까지를 말한다.
- l) 벌레 : 소와 잠데를 연결하는 줄이 쇠엉덩이에 달라 붙지 않도록 기능하는 나무.
- m) 솜비줄/손디줄 : 멍에와 벌레 사이의 줄.
- n) 등케/등쾌 : 솜비줄이 너무 내리지 않게 하는, 소 등에 걸치거나 매어진 줄.
- o) 멍에 : 소의 목에 얹혀지는 활 모양의 나무로, 솜비줄을 여기 묶는다.
- p) 좁게/적쾌 : 멍에를 소에 밀착시키는 나무이며, 두개의 좁게가 멍에 양쪽에서 내려와 적쾌친(→끈)으로 묶어진다.
- q) 가린석/가리섭 : 소의 진행 방향을 조절할 때 쓰이는, 소의 뿔에 매어 코뚜레를 통하는 줄이다. 가린석 끝에는 가린석의 손잡이인 가린석코가 나무로 둥그렇게 되어 있다.

海 女

目 次

- I. 龍水里와 海女
- II. 作業과 採取物
- III. 海女 出稼
- IV. 海女器具 및 收益

I. 龍水里와 海女

龍水里 海女는 本島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海女처럼 勤勉·儉素하다. 이 마을 海女들의 生活은 半農半漁다. 다른 마을에 比해서 農業에 依存度가 적은 것도 아니다. 農事일과 海女作業을 번갈아 하며 쉴 사이 없는 勞動의 連續이다.

한 80歲의 老婆의 말을 빌면 老婆가 30歲 때에는 龍水里 앞바다의 우뚝가사리가 돌는 돌을 慶尙北道까지 배에 싣고 갔었다 한다. '청수물'에서 시집왔다는 現 90歲의 '문유인' 老婆는 18歲 때 龍水里에 시집와서 海女作業을 배우려 했지만 도저히 배우지 못해서 農事일만 한다고 했다. 龍水里 海女들이 자신의 職業에 대한 態度는, 未婚女일수록 結婚하면 海女作業을

그만두겠다고 하나, 다른 職業보다 收益이 좋은 海女作業이 좋다고 異口同聲으로 말한다. 어떤 海女는 부지런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는 것과 生活이 좀더 潤澤해지는 것이 所願이라고 했으며, 또한 自身の 職業에 대한 不滿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採取物이 많은 날은 몸이 疲困한 것도 잊어버린다. 그러나 採取物이 적은 날은 自身이 서럽게 생각되기도 한다고 했다.

Ⅱ. 作業과 採取物

龍水里 海女들이 주로 作業하는 場所는 ‘내여’·‘주심여’·‘쇠머리’·‘담줄바른여’·‘동여’·‘감태줄’·‘선너리’ 등이다. ‘여’라 함은 海中 岩礁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이 중에서도 ‘선너리’는 遮歸島 앞바다를 두고 말하며 ‘쇠머리’·‘동여’·‘감태줄’ 등의 여러 場所 中에서 가장 採取物이 豐饒한 곳이다. ‘선너리’로 作業을 나가는 날은 마을 海女 全部가 發動機船을 타고 나가 作業한다.

龍水里 海女들은 약 26년전만 해도 龍塘里 앞바다까지 가서 作業을 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龍水里와 龍塘里는 統合되어 있었다. 龍塘里에서 나는 採取物은 龍水里의 것보다 良質이다. 그러나 海女の 數로 比較한다면 龍水里 海女가 26年前이나 現在나 모두 龍塘里 海女보다 優勢하다. 이렇게 되니 採取物이 豊富하고 良質인 龍塘里 앞바다로 作業하러 가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1965~1969年 사이에는 龍水里와 龍塘里 사이에 漁場紛糾가 벌어져 中央水產廳에까지 알려졌었다. 이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龍水一里·龍水二里라 하여 行政上으로 하나의 마을로 묶여 있다가, 龍水和 龍塘이 獨立된 里로 分割되면서 각각 獨立한 漁村契를 갖게 되었는데 共同作業을 하던 龍塘里 앞바다까지도 分割하게 되자 일어난 紛爭이다. 龍水里 海女로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이 作業하던 漁場을 포기할 수 없어 계속 龍塘里 앞바다에 가서 作業하러 하자, 龍塘里 海女들이 龍水里 海女가 作業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이에 두 마을 海女가 總動員되어 큰 편싸움이 벌어졌고, 마침내는 負傷을 당하여 病院에 入院하는 海女도 생기게 되었다. 이 紛爭은 드디어 翰林漁協의 仲裁會議에 따라 오늘날의 境界인 ‘장태코’를 中心으로 龍水里와 龍塘里的 바다는 分割되었다.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1977年 現在,龍水里 海女 現況을 보면 漁業組合에 加入된 海女가 69名, 非組合員이 160名으로 龍水里 漁村契 統計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作業年齡別 分布를 보면, 65歲 이상의 老齡의 海女가 15%, 19~25歲 미만의 海女가 25%, 나머지 40歲前後의 海女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龍水里 海女の 年齡에 따른 作業水準을 보면 10길 作業하는 海女는 30~40歲 사이에서 가장 많다.

30~40歲는 가장 作業에 熟練되는 나이다. 이때에 10길 潛水하는 海女를 '上軍'(상잠수)이라 부르며 7~8길 潛水하는 海女를 '中軍'(중잠수)라 부르고 7~8길보다도 뒤떨어지는 海女를 '下軍'(하잠수)이라 부른다. 이 名稱들은 本島의 다른 地域인 大浦里·吾照里·加波島·牛島 一帶의 경우와 같다.

<表1>

海女 作業 始作 年齡

龍 水 里

作業始作年齡	(歲) 11	12	17	18	20	21	29	備 考
人 員	(名) 1	1	2	17	6	1	1	平均年齡 18.2歲

1973年 12月 現在

<表2>

海女 作業 始作 年齡

牛 島

作業始作年齡	(歲)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備 考
人 員	(名) 2	1	1	0	2	14	7	1	6	6	1	平均年齡 15.2歲

1973年 8月 現在

龍水里 海女の 作業始作 年齡은 18歲에 거의 쏠리고 있음을 <表1>을 통하여 볼 수 있다. <表1>과 <表2>를 比較하여 보면 牛島 海女인 경우는 15歲에 시작하는 海女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表1>과 <表2>를 통해서 龍水里 海女가 牛島 海女보다 作業始作 年齡이 꽤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平均年齡의 比較에서도 龍水里 海女가 18歲, 牛島

濟州島部落誌 (Ⅲ)

海女가 15歲로 나타나, 龍水里 海女가 牛島 海女보다 약 3歲가 늦어진다. 本格的 作業에 들어갔을지라도 先輩 海女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18歲前後의 海女란 어리고 서툴게 보인다. 그래서 龍水里에서는 어린 海女를 가리켜 ‘호좁네’ · ‘툴파리좁네’라 부른다.

月別 作業日數 平均을 보면 陰曆 7月~8月 사이에 作業이 旺盛함을 <表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 3月과 8月이 作業日數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은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물이 따뜻해져 자연 3월에 이르면서 作業에 活氣를 띠는 것이라 보인다. 8月은 季節的으로 作業하기에 적당한 時期다, 5月과 10月이 作業日數가 비슷한 것은 農繁期라는 데 있다.

12월에 가서 급격히 作業日數가 떨어지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고 波浪이 심해지는 데 있다. <表3>과 <表4>를 比較하면 龍水里와 牛島를 對比해 볼 수 있다. 全體的으로 龍水里가 牛島보다 作業日數가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龍水里 海女가 牛島 海女보다 農業에 依存하는 경향이 큰 데도 이유가 있다.

<表3>

月別 平均 作業 日數

		龍水里											
月別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月別平均 作業日數	(日)	4.1	5.3	13.4	7.8	3.4	8.3	12.1	13.2	5.6	3.1	3.6	0.8

1973年 12月 現在

<表4>

月別 平均 作業 日數

		牛島											
月別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月別平均 作業日數	(日)	4.4	6.8	7.3	10.2	12.5	13.7	16.5	15.0	14.0	9.7	4.7	6.6

1973年 8月 現在

龍水里 海女の 月別 平均 潜水回數는 <表5>를 통하여 볼 수 있다. 5月 · 6月 · 10月 · 12月을 除外한 달은 하루평균 1回~2回 以上까지 潜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月・6月・10月은 農繁期라는 데서 1日 平均 潜水回數 1회도 안되고 있으며, 12月은 날씨가 춥고 波浪이 심한 이유 때문에, 作業을 거의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데서다.

<表 5>

月別 1日平均 潜水回數

龍 水 里

月 別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月別 1日平均潜水回數	(回) 1.2	1.5	2.4	2.2	0.6	0.8	2.1	2	1.4	0.8	1.3	0.3

1973月 12月 現在

<表 6>

月別 1日平均 潜水回數

牛 島

月 別	(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月別 1日平均潜水回數	(回) 1.1	1.2	1.8	2.0	1.9	2.1	2.2	1.9	1.7	1.7	1.3	1.3

1973年 8月 現在

<表 6>은 牛島 海女の 月別 平均 潜水回數다. 7월에 가서 龍水里와 牛島 海女の 月別 平均 潜水回數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龍水里 海女の 主要 採取物은 전복・소라・미역・해삼・성게다. 미역은 陰曆 12월에 禁採했다가 3月이 되면 許採한다. 미역을 許採하는 日字는 海女會長과 漁村契長이 결정하면, 各班의 班長은 許採日字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알린다. 加波島나 牛島에서처럼 미역이 許採되는 날은 온 식구가 總動員되어 미역 採取場에 나간다. 海女들이 1日 3回씩 潜水해서 採取한 미역을, 어린 자식들과 男便들은 지어나르고, 말리기 위하여 평평히 늘어놓아 너는 일을 돕는다. 이런 作業이 10日間 계속된다.

龍水里 海女들은 農繁期 때에는 새벽 7時에 밭에 나가 밭일을 하다가 오후 12時쯤 되면 집에 돌아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옆집 海女들과 어울려서 바다로 향한다. 낮이 긴 여름날은 오후에 바다에 가서 2回의 潜水를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다시 밭에 가서 일을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는

作業하러 갈 때 집에서 각자가 作業途中 불을 지필 땀감을 갖고 나간다. 1회의 潜水가 끝날 때마다 '불턱'에다 불을 피워서 쪼며, 作業途中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雜談時間이 된다.

作業中에 不意의 事故가 있다면 전복을 캐려고 빗창을 전복 사이에 찌른 것이 빠지지 않은 때다. 손에 감고 있는 빗창끈이 빠지지 않아, 숨이 막혀 窒息死하는 海女도 있다. 이 외에도 波浪이 심한 날은 頭痛이 심하여 作業을 하다 中斷하는 海女도 가끔은 있다.

龍水里 海女들은 妊娠했을 때에도 分娩 직전까지 作業을 하고 있다. 分娩한 海女들의 産後 몸조리는 대개가 7~15日 정도다. 어떤 海女는 産後 3~4日이 지나면 거뜬히 作業에 나서는 海女도 있다. 이 마을의 65歲의 한 老婆는 作業을 끝내고 歸家 도중에 길가에서 分娩하여 아기의 이름을 吉童(現39歲)이라 지었던 일도 있다.

Ⅲ. 海女 出稼

龍水里 海女の 出稼地를 보면, 過去에는 日本의 對馬島 地方으로 出稼했던 海女들도 많다. 現在는 國內인 慶尙北道 一帶인 九龍浦·莞島·浦項·竹山·蔚山 및 全羅道 地方으로 出稼하고 있다.

出稼하게 된 動機를 보면 自意에 의해서 出稼하는 海女가 大部分이지만 他意에 의해서 出稼하는 海女도 더러 있다. 自意에 의한 出稼란 먼저 갔던 地方을 스스로 出稼하는 경우를 말한다. 他意에 의한 出稼는 동네에 船主가 와서 海女들을 募集하면 出稼하는 경우다.

現在 79歲의 '김정화'老婆는 30歲에 出稼할 때 濟州에서 元山까지는 汽船을 타고 간 다음, 咸鏡北道 清津까지는 風船을 타고 가면서 '뱃물질'을 했다고 한다. 이 때 배 안에는 海女들이 데리고 간 어린이가 6名, 沙工 6名, 海女 12名이 한 배에서 生活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作業을 했었다 한다.

40歲의 '좌정자'海女는 19~24歲 사이에 連5回나 出稼한 經驗을 가지고 있는데 江原道の 三陟, 慶尙北道 一帶인 甘浦·竹山·大甫 등지를 다녔다고 한다. 이 때의 出稼는 마을에 온 引率者를 따라서 出稼했다고 한다.

出稼地로 향하는 時期는 陰曆 2月~3月 사이에 出發하고 있으며, 歸歸 時期는 8月~9月 사이다. 龍水里 海女の 出稼 始作 年齡은 平均 20歲로

北濟州郡 翰京面 龍水里

<表7>에 나타난다. 몇년전만 해도 40歲前後의 海女들도 出稼를 했었지만 近來에 와서는 未婚女들이 出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未婚女들은 出稼해서 올린 收益으로 婚需감을 장만하는 것이다. 未婚女가 出稼해서 生活하다 보면 出稼地 男子하고 結婚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몇년전만 해도 出稼地에서 結婚한 海女를 동네 사람들이 賤視하였는데 요즘에 와선 出稼地에서 結婚한 海女를 賤視하는 경향이 점점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는 問題라고 한다. <表7>과 <表8>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龍水里와 牛島 海女 모두가 18歲에 出稼를 시작했다는 海女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龍水里 海女の 出稼始作年齡은 14歲~29歲 사이며, 牛島 海女는 15歲~23歲 사이로 나타나 龍水里 海女가 牛島 海女보다 좀더 늦게야 出稼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表7>

出稼始作年齡

龍水里

出稼始作年齡	(歲) 14	17	18	19	20	21	22	29	備考
人員	(名) 1	1	9	2	6	2	1	1	平均年齡 20歲

1973年 12月 現在

<表8>

出稼始作年齡

牛島

出稼始作年齡	(歲) 15	16	17	18	19	20	21	22	23	備考
人員	(名) 2	1	5	16	21	11	5	2	1	平均年齡 18.9歲

1973年 8月 現在

龍水里 海女の 出稼生活中 1個月當 作業日數는 <表9>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個月當 7日~20日 作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10> 牛島 海女の 1月當 作業日數와 比較하면 牛島 海女들은 7日~25日 作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出稼生活中 1日當 潛水回數는 龍水里

濟州島部落誌 (Ⅲ)

<表9>

出稼生活中 1個月當 作業日數

龍 水 里

1月當 作業日數	(日) 7	10	12	13	14	15	16	17	18	20
人 員	(名) 2	4	5	2	1	20	1	3	8	4

1973年 12月 現在

<表10>

出稼生活中 1個月當 作業日數

牛 島

1月當 作業日數	(日)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2	23	25
人 員	(名) 4	13	1	2	5	2	53	3	5	6	22	2	2	1

1973年 8月 現在

海女인 경우 1回~6回까지 潜水하고 있는 것으로 <表1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表12>는 牛島 海女인 경우다. <表11>과 <表12>를 比較했을 때, 1日 3回 정도 潜水한다는 海女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表11>

出稼生活中 1日當 潜水回數

龍 水 里

1日當 潜水回數	(回) 1	2	3	4	5	6	備 考
人 員	(名) 1	11	54	2	2	1	平均回數 2.6回

1973年 12月 現在

<表12>

出稼生活中 1日當 潜水回數

牛 島

1日當 潜水回數	(回) 1	2	3	4	5	6	7	備 考
人 員	(名) 2	25	58	39	11	3	3	平均回數 3.4回

1973年 8月 現在

出稼地域에 따라 作業方法도 달라진다. 慶尙北道地方 一帶는 ‘못물질’을 하며, 江原道 地方으로 가면 ‘옛물질’을 하고 있다. 龍水里 海女の 出稼時 採取物 處理 方法은 ‘옛물질’을 해서 採取한 것은 1個月~2個月間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海女の 人會 아래 船主가 팔면, 收益의 20%를 船主에게 배상으로 支拂하고 있다. ‘못물질’인 경우는 그날그날 판다. 出稼할 때에 故鄉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出稼하는 海女도 가끔 있다. ‘옛물질’할 때에는 배에다 어린아이를 싣고 간다. 作業할 동안은 沙工이나 船主가 돌본다. ‘못물질’일 때에는 애를 돌보아줄 사람을 데려서 作業하러 나가면서 부탁해 놓고 간다. 애를 돌보아준 값으로 설이 돌아오면 옷이나 現金으로써 謝禮하기도 한다.

IV. 海女器具 및 收益

龍水里 海女들이 使用하는 器具는 <表13>에 나타난다. 1973년까지만 해도 改良服을 사용하지 않고 在來服을 입고 있었다. 1977年 1月 現在에는 龍水里 海女 全體가 改良服을 사용하고 있다. 1973년까지만 해도 改良服을 갖고 있는 海女가 있어도 이를 입지 않고, 出稼했을 때만 입었었다. 이는 採取物을 한꺼번에 다구 採取하지 않으려는 마을 共同의 協約에 따른 것이었지만 潜水機船이 不法侵入하여 採取物을 不法採取하기 때문에, 마을 海女들이 改良服을 共同 購入하여 입게 된 것이다. <表14>는 牛島 海女の 使用 器具다. <表13>과 <表14>를 比較하여 보면 龍水里 海女가 ‘망사리’ 使用에 있어서는 在來 ‘망사리’를 쓰고 있는 海女가 많음

<表13>

現用 海女服 및 海女 器具

龍水里

種	類	在來服・器具	改良服・器具
물옷 (海女服)		20	9
눈 (水鏡)		1	28
망사리 (繩網袋)		19	20
테왁 (浮瓢)		3	26

1973年 12月 現在

<表14>

現用 海女服 및 海女 器具

牛 島

種	類	在 來 服 · 器 具	改 良 服 · 器 具
물옷 (海女服)		19	58
눈 (水鏡)		1	76
망사리 (繩網袋)		—	77
테왁 (浮瓢)		1	76

1973年 8月 現在

나타난다.

龍水里 海女 中에는 1日 3천원~5천원 버는 海女도 있다. 收益을 많이 올려서 1年 백만원 버는 海女도 있다. 이런 海女를 가리켜서 '백만원 짜리'라 海女 사이에선 부른다. 이들 海女の 收益은 家庭生活費와 敎育費로 대부분 쓰인다. 어떤 海女는 자식을 大學까지 敎育시키기 위하여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海女作業을 해서 번 돈 全部를 學費로 調達하는 경우도 있다.